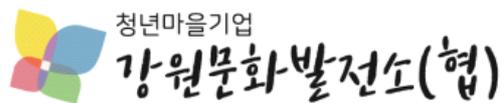


최종보고서

강원청년의 지역살이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2022. 8. 26



제 출 문

강원도의회 귀하

[강원 청년의 지역살이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강원문화발전소 협동조합

총괄 책임자	한주이
공동 연구진	백기훈
	이호준
전문가 자문	김원효
	이승일
연구보조	이상호
	이용진
	김석현

목 차

제1장 팬데믹 시대의 청년 강원살이	1
제1절 연구 배경	1
1. 팬데믹 시대의 일상.....	1
2. 팬데믹 시대의 지방소멸.....	3
제2절 연구 목적과 내용.....	4
1. 강원도 in 팬데믹.....	4
2.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슬기로운 강원살이	9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10
1. 연구 주요 내용.....	10
2. 연구 진행 범위.....	11
제2장 강원 청년의 지역살이 현황	13
제1절 지방 소멸위기의 강원도.....	13
1.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in 강원.....	13
2.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와 인구이동.....	17
제2절 강원 청년 지역살이 일반현황.....	22
1. 팬데믹 시기의 대한민국 강원도.....	22
2. 팬데믹 시기의 청년들의 강원살이.....	25

제3장 청년 정책 및 강원도 청년 관련 정책 현황	31
제1절 청년정책 현황.....	31
1. 청년정책 기본 현황.....	31
2. 2022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기본 내용.....	32
3. 강원도 청년정책 현황.....	33
제2절 팬데믹 시기 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 활동 사례.....	35
1. 대구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35
2. 서천 ‘삶기술학교’.....	42
제4장 강원도 청년 현황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47
제1절 강원도 청년 현황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47
1. 설문조사 개요.....	47
2. 실태 및 설문분석.....	49
제2절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 자문.....	79
제5장 안정적인 강원살이 기반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83
제1절 왜 안정적인 강원살이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83
제2절 팬데믹을 이기는 강원살이 기반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85
제6장 강원도형 청년 지원방안 및 청년 정책 방향 제안	89
제1절 안정적인 강원살이를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	90
제2절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정착.....	93
[부록 1]	96
설문지.....	96
참고문헌.....	108

표 차례

<표 1-1>	전국 연령별 인구 현황	4
<표 1-2>	강원도 총인구 현황	5
<표 1-3>	전국/강원도의 고령 인구비율	6
<표 1-4>	강원도 연령별 인구 분포도	6
<표 1-5>	전국 청년 경제활동인구 현황	7
<표 1-6>	전국 소상공인 지역별 실적 및 전망	8
<표 2-1>	전국 지방 소멸위험지수	13
<표 2-2>	강원도 총인구 현황	14
<표 2-3>	강원도 인구 증감	14
<표 2-4>	강원도 시·군별 인구 현황	15
<표 2-5>	강원도 시·군별 지방 소멸위험지수	16
<표 2-6>	전국 및 강원 인구 증감 현황	17
<표 2-7>	시·도별 청년인구	18
<표 2-8>	서울·경기 청년이동자 수 현황	19
<표 2-9>	전국 청년 경제활동인구 현황	19
<표 2-10>	시·도별 청년 경제활동 현황 (청년인구)	20
<표 2-11>	시·도별 청년 취업·실업 현황	21
<표 2-12>	강원도청년 취업 현황	21
<표 2-13>	전국/강원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인구현황	23
<표 2-14>	업종별 특성화에 따른 경기회복 유형화	24
<표 2-15>	전국 삶의 만족도	25
<표 2-16>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2019년 4분기) 이후 누적 집값 상승률 상위 10개국	26
<표 2-17>	전국/강원도 주택보급률	26
<표 2-18>	전국 가구 부채 비율	27
<표 2-19>	전국/강원도 청년 1인가구 수	28
<표 2-20>	전국/강원도 혼인 추이	29
<표 2-21>	강원도 삶의 만족도	29
<표 2-22>	지역별 연간 여가생활을 위한 한 달 평균 지출 금액	30
<표 2-23>	지역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가비용 한 달 평균 금액	30
<표 3-1>	전국 운영 현황	31
<표 3-2>	강원도 청년정책 기본 추진방향	33

<표 4-1>	설문 응답자 연령대	49
<표 4-2>	설문 응답자 강원살이 유형	49
<표 4-3>	강원도 거주기간	50
<표 4-4>	주거 형태	50
<표 4-5>	강원도에 거주하는 1차적 동기	51
<표 4-6>	강원살이의 장점	51
<표 4-7>	한 달 평균 생활비 지출금액	52
<표 4-8>	지출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부분	52
<표 4-9>	구직활동 및 취업 준비 유무	53
<표 4-10>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53
<표 4-11>	지역(동네)의 지역 주민단체나 시민단체 인식 유무	54
<표 4-12>	지역(동네)의 지역 주민 단체나 시민단체와의 연관성 정도	54
<표 4-13>	지자체 산하 연계기관 및 도내 기관과 연계된 활동 유무	54
<표 4-14>	취·창업 관련 정보 및 교육의 취득 경로	55
<표 4-15>	팬데믹 시기에 근로의욕 저하 및 환경의 어려움 경험유무	56
<표 4-16>	코로나시기의 재테크 경향	56
<표 4-17>	팬데믹 시기의 부채 현황	57
<표 4-18>	팬데믹 시기의 직장인과 창업자들의 어려움 정도	57
<표 4-19>	코로나19로 인한 창업 및 사업의 어려움 해결 방법	58
<표 4-20>	경영 및 운영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점	58
<표 4-21>	코로나19로 인한 창업 및 사업의 어려움 해결 방법	59
<표 4-22>	이직 고민의 이유	59
<표 4-23>	취·창업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	59
<표 4-24>	팬데믹 시기에 취·창업의 어려움 여부	60
<표 4-25>	팬데믹 시기에 취·창업의 어려움 현황	60
<표 4-26>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주요한 요인	61
<표 4-27>	결혼에 대한 인식	61
<표 4-28>	청년 노동시장의 체감 정도	62
<표 4-29>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정도	62
<표 4-30>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정도	63
<표 4-31>	강원도의 삶에 대한 만족 유무	63
<표 4-32>	강원도에 살기 좋은 이유	64
<표 4-33>	강원도에 살기 싫은 이유	65
<표 4-34>	취업 및 창업 선택 시 고려하는 점	66
<표 4-35>	취업 희망 직종	66
<표 4-36>	희망하는 근로 형태	67
<표 4-37>	취업 및 창업 선택 시 고려하는 점	67
<표 4-38>	창업 또는 개인사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	68
<표 4-39>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적당한 기간	68
<표 4-40>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69
<표 4-41>	취업·창업 과정 중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	69

<표 4-42>	강원도 내의 취업·창업에 필요한 지원	70
<표 4-43>	창업시 지원이 필요한 시기	70
<표 4-44>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도	71
<표 4-45>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대 정도	71
<표 4-46>	도내 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계 및 협력 활동의 연결점	72
<표 4-47>	결혼과 출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72
<표 4-48>	강원도의 일자리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73
<표 4-49>	청년 고용 및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73
<표 4-50>	소상공인 및 창업지원 가장 필요한 정책	74
<표 4-51>	안정적인 강원살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	74
<표 4-52>	지속적인 강원살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환경	75
<표 4-53>	청년의 금융경제 관련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75
<표 4-54>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 정책	76
<표 4-55>	결혼과 출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77
<표 4-56>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 정도	77
<표 4-57>	청년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78

그림 차례

<그림 3-1>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조직구성도	36
<그림 3-2>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공간이미지	38
<그림 3-3>	서천 삶기술학교 홍보이미지	43
<그림 3-4>	서천 삶기술학교 조성공간 이미지	44
<그림 3-5>	서천 삶기술학교 활동성과 이미지	45

팬데믹 시대의 청년 강원살이

제1장 팬데믹 시대의 청년 강원살이

제1절 연구 배경

1. 팬데믹 시대의 일상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혼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환자 발생 이후,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를 최고등급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전 세계에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동안 꾸준히 COVID-19를 감시해 온 결과 확산세와 심각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COVID-19사태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합니다.

팬데믹은 쉽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잘못 쓰면 불필요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사람들의 극복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팬데믹이란 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실행 가능한 단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예방(prevention), 준비(preparedness), 공중보건(public health),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people)입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현 사태를 이겨내고 인류를 구해야 합니다.

[인용 :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 팬데믹 선언 전문 중]

하지만, WHO의 선언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코로나의 확산은 멈추지 않았으며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과 백신부족 등 여러 상황들이 가중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우려되던 "불필요한 공포심"이 현실화 되었고 팬데믹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이는 한 국가나 특정 사회, 경제나 다른 요소로 인한 문제가 아니며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한 지역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받는 영향은 계속 되어질 것이다.

2022년 3월 5일 거리두기 완화를 시작으로 대한민국도 점차 일상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이 여행 제한과 봉쇄조치를 시행하였고 굳어버린 경제 흐름 속에서 대규모 실직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폐업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배달, 보건, 의료, 돌봄 등의 분야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문제역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생계를 위해 배달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택배, 오토바이 배달 기사 사망 사고가 대폭 증가하여 2021년 5월 18일 정부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비대면의 확산으로 교육계에서도 온라인·원격 교육이 시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던 아이들의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치료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국민들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고령의 노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하게 되는 등 경제적 불평등 역시 깊어지게 되었다.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blue’가 합쳐진 단어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기침체 등의 요소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을 겪는 현상을 뜻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삶이 크게 변화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아직도 코로나19는 건재하며 우리들의 일상은 회복과 재확산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굴레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2. 팬데믹 시대의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문제와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 문제였지만 최근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그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시군구 기준으로 2005년 33곳이었던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2021년 106곳으로 73곳이나 증가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 역시 2022년 3월 기준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되면서 소멸 위험 지역 비중이 높아졌다.

팬데믹이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와 인구소멸, 청년 인구의 감소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특히나 지역 사회 경제에서 관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원도는 팬데믹의 타격을 더욱 크게 받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가 관광객을 줄어든게 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경제가 악화되어 상권소멸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몰락,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에 까지 이르렀으며 이는 기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와 청년들의 지역이탈 문제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찾기 위해 발전된 수도권을 지향하는 청년들의 인구 집중현상과 남겨진 지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인구절벽을 맞이한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크나큰 고민이자 과제이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와 도민들이 함께 모여 해결 방안과 대안을 고민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 기반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발전시키는 등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노력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기존에 있던 지방청년 인구이탈 현상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에 팬데믹이 끼친 영향, 연관성과 그 원인은 무엇일까?

지역사회의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과 위기의 원인을 바로 인식하고 대응할 구체적인 체계, 구조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강원도의 지역인구 소멸과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강원도 in 팬데믹

1) 강원도 현 상황

줄어드는 출산율과 늘어나는 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구 연령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에서 이 문제는 지역 인구의 소멸이나 청년 인구의 감소를 통해 지방의 향후 존립, 그리고 미래와 이어지는 중대한 사항이다.

<표1-1> 전국 연령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3
계	51,696,216	51,778,544	51,826,059	51,849,861	51,829,023	51,638,809	51,610,695
증감수		△82,328	△47,515	△23,802	▽20,838	▽190,214	▽28,114
0세~14세	6,916,147 (13.4)	6,785,965 (13.1)	6,628,610 (12.8)	6,466,872 (12.5)	6,307,659 (12.2)	6,124,546 (11.9)	6,065,378 (11.8)
15세~29세	9,889,487 (19.1)	9,764,625 (18.9)	9,629,578 (18.6)	9,469,408 (18.3)	9,261,900 (17.9)	9,001,043 (17.4)	8,926,595 (17.3)
30세~64세	27,894,930 (53.0)	27,871,848 (53.8)	27,917,463 (53.9)	27,886,666 (53.8)	27,763,387 (53.6)	27,662,187 (53.6)	27,635,426 (53.5)
65세이상	6,995,652 (13.5)	7,356,106 (14.2)	7,650,408 (14.8)	8,026,915 (15.5)	8,496,077 (16.4)	8,851,033 (17.1)	8,983,296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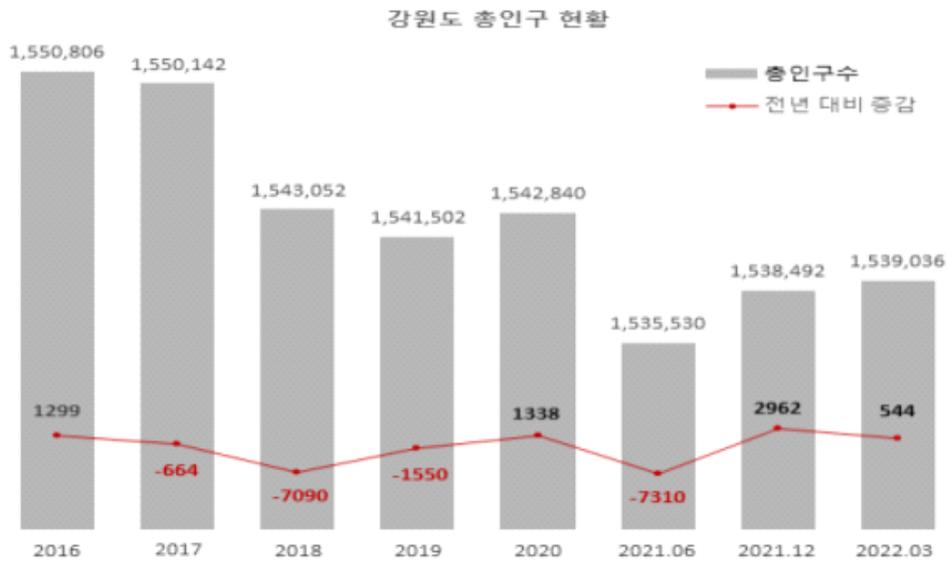
출처 : 국가 통계포털, 22년 3월 기준, 전국 연령별 인구현황

2) 강원도 연령별 인구 현황

강원도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 3월 기준 1,542,840명이다. 원주시가 '20년 혁신도시 이전', '21년 기업도시'의 영향으로 인구증가를 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201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뜻이다. 연령별 인구 현황으로 유소년층(0~14세)과 청년층(15~29세)의 감소세가 뚜렷하고 노년층(65세 이상)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1년도 청년층의 감소와 고령 인구의 증가가 더 심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1-2> 강원도 총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06	2021.12	2022.03
총인구	1,550,806	1,550,142	1,543,052	1,541,502	1,542,840	1,535,530	1,538,492	1,539,036
전년 대비증감	△1,299	▽664	▽7,090	▽1,550	△1,338	▽7,310	△2,962	△544

출처 : 국가통계 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22년 3월 기준, 강원도 총인구 현황

3) 고령화와 청년인구 현황

강원도의 고령화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고, 전국단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아도 상대적으로 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시기인 202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인구 비율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1-3> 전국/강원도의 고령 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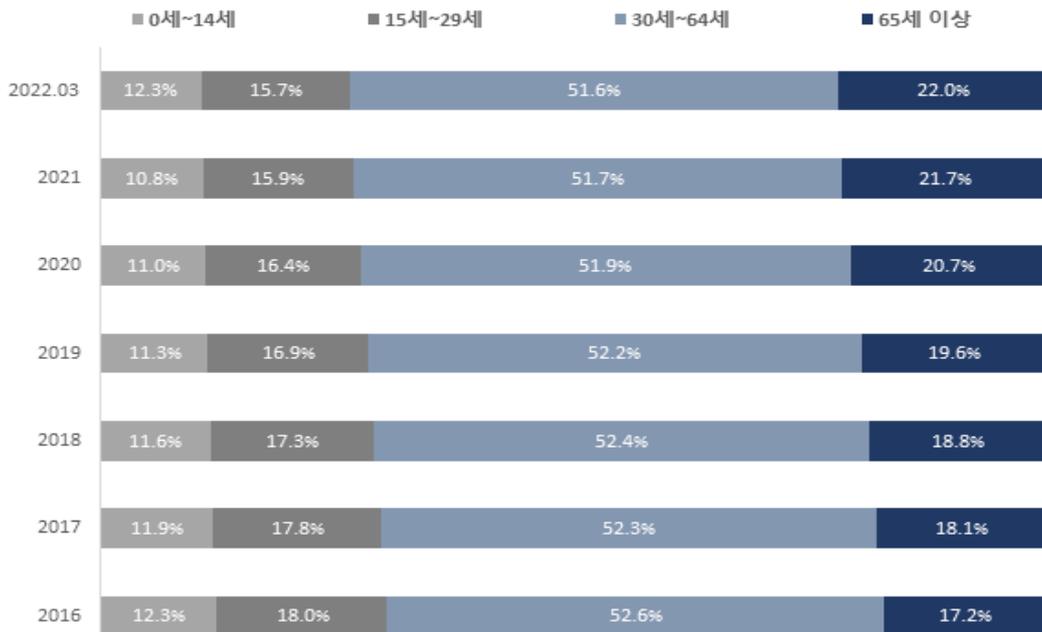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13.15	13.53	14.19	14.76	15.48	16.39	17.14
증가폭		3.8	6.6	5.7	7.2	9.1	7.5
강원도	16.89	17.16	18.06	18.75	19.65	20.72	21.66
증가폭		2.7	9.0	6.9	9.0	10.7	9.4

출처 : 국가통계 포털 및 통계청 출생·사망 통계, 연도별

<표1-4> 강원도 연령별 인구 분포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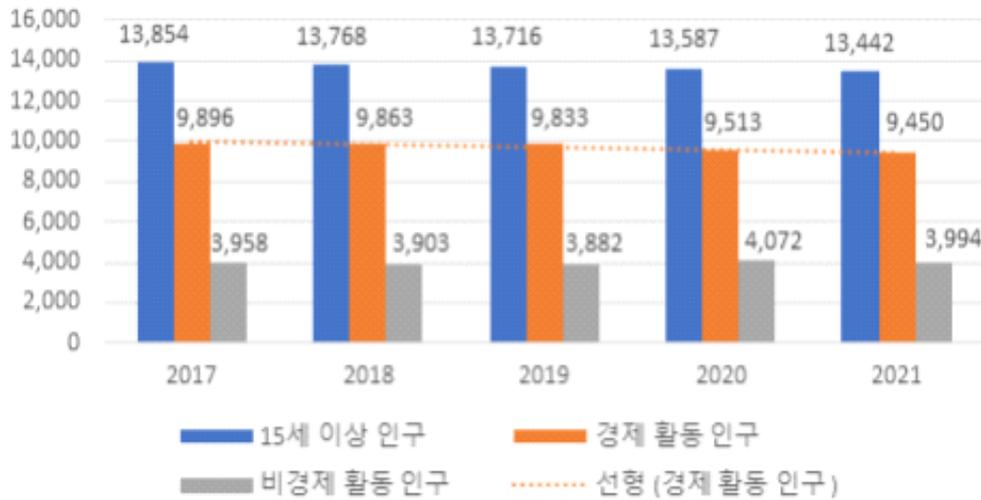
출처 : 국가 통계포털, 22년 3월 기준, 강원도 연령별 인구현황

4) 인구감소와 경제활동

전국적으로 청년인구의 감소와 경제활동 인구수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전후를 비교해 보면 경제인구의 감소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가 확연하다.

<표1-5> 전국 청년 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전국									
	15세 이상 인구	증감수	경제 활동 인구	증감수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감수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감률	고용률	증감률
2009	14,815		10,271		4,545		68.7		64.9	
2013	14,136		9,821		4,315		68.6		65.1	
2017	13,854		9,896		3,958		70.9		66.5	
2018	13,768	▽86	9,863	▽33	3,903	▽55	71.2	△0.3	66.8	△0.3
2019	13,716	▽52	9,833	▽30	3,882	▽21	71.3	△0.1	67.1	△0.3
2020	13,587	▽129	9,513	▽320	4,072	△190	69.6	▽1.7	65.5	▽1.6
2021	13,442	▽145	9,450	▽1,063	3,994	▽78	70.0	△0.4	66.4	△0.9

출처 : 국가통계 포털, 경제활동 인구조사 행정구역(시도)/경제활동인구, 2021

5) 팬데믹 시기의 지역경제

국가 통계포털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이후 전국 소상공인 지역별 실적 및 전망은 2022년 현재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상공인 대출과 지원금 등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상공인의 지역별 전망 대비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상권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는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최하위의 실적과 전망을 보이고 있다.

<표1-6> 전국 소상공인 지역별 실적 및 전망

지역	2017.02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02
	체감	전망	전망										
서울	60.1	82.8	61.0	90.1	57.5	86.6	65.8	85.3	49.4	96.3	44.9	86.5	65.0
부산	57.0	83.3	61.4	81.0	59.6	82.7	69.3	85.4	47.1	95.1	31.5	84.7	64.5
대구	57.3	83.4	57.6	85.1	59.3	86.1	62.6	84.8	49.3	98.7	33.4	85.4	73.3
인천	60.5	88.5	58.0	78.7	58.7	88.8	62.6	86.0	52.9	97.1	37.9	83.9	68.9
광주	49.1	88.1	73.0	90.7	71.2	87.6	67.3	84.1	52.6	97.4	40.3	85.8	65.9
대전	64.5	87.7	64.5	93.2	63.2	83.6	67.3	87.7	49.5	96.8	38.3	90.5	74.5
울산	44.9	84.8	64.1	88.4	66.7	89.9	65.7	84.8	51.0	94.8	39.2	84.5	58.2
세종	67.5	90.0	72.5	90.0	77.5	91.3	71.3	86.3	66.3	96.3	44.2	70.9	74.5
경기	58.6	84.5	63.6	84.3	62.6	87.9	67.6	86.2	51.0	97.3	40.6	83.9	67.7
강원	56.6	89.3	72.5	83.6	58.2	90.6	66.8	88.5	54.2	94.1	39.5	75.6	63.4
충북	56.1	87.7	70.2	94.3	60.5	85.5	67.5	87.3	53.5	95.7	38.3	89.6	68.3
충남	64.0	89.9	65.5	87.6	64.7	84.9	70.9	88.4	56.6	93.8	41.9	85.8	66.4
전북	55.6	85.5	69.4	86.7	61.7	83.1	67.3	85.9	50.8	100	37.5	87.5	75.0
전남	50.8	84.1	64.6	92.7	68.3	91.1	70.7	91.9	54.9	91.5	42.7	89.4	74.0
경북	56.9	88.2	62.7	79.7	62.4	87.3	63.4	82.7	52.6	89.9	36.5	85.2	72.9
경남	59.7	84.1	58.2	86.2	57.1	80.9	59.7	80.9	50.3	97.1	36.5	85.7	72.4
제주	52.0	87.3	70.0	96.0	71.3	98.0	72.0	86.7	50.0	96.1	48.8	91.3	66.0

출처 : 국가 통계포털, 21년 12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지역별 실적 및 전망

2.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슬기로운 강원살이

지역사회의 청년 인구 감소 문제는 인구 고령화라는 단순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자생력 있게 발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출장형식으로 필요한 인력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동원 할 수는 있겠으나 임시방편일 뿐, 오히려 이러한 근시안적 방법들에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이 밀려나 강원 미래를 살아가고자 하는 지역 청년들의 기회가 박탈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강원도는 팬데믹 시대에 침체된 경기와 위축된 일상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지역민들과 지자체가 함께 소통, 교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현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반영 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

“강원다운 가치와 자원으로 미래를 열어갈 강원특별자치도!”

산 좋고 물 맑은 청정 강원! 2022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2023년 6월 11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될 예정이며 이러한 소식은 인구소멸의 위기와 연령 불균형의 심화, 그리고 이를 가속하는 팬데믹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강원도민들과 강원청년에게 큰 기대감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국 최하위권 28%대 재정자립도를 갖는 강원도가 인적자원의 부족과 역량의 미비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그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기반이자 삶이 될 청년들의 강원살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게 되었다.

강원의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청년의 목소리를 담고 슬기로운 강원살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과 내용으로 이 연구를 진행한다.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주요 내용

이 연구는 강원살이를 하고 있는 도민의 입장과 청년의 입장을 반영하는 ‘강원 청년의 지역 살이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에 목소리를 담고자 아래의 과제들을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

1) 정책 및 현황 분석

- (1) 전국 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 일반 현황
- (2) 강원도 청년 기본 통계인구, 인구동향 및 이동, 경제활동, 고용구직 등)
- (3) 청년 관련 정책 및 운영 현황
- (4) 팬데믹 시대의 강원도 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 현황

2) 팬데믹 시대 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대응 사례

- (1) 사례1. 기관(행정안전부) 연계 대응 사례 : 레인메이커스 협동조합
- (2) 사례2. 지자체 연계 대응 사례 : 서천 삶 기술학교
- (3) 강원도 청년 관련 정책 운영 현황 및 주요 내용

3)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 (1) 설문조사 설계 : FGI(표적집단면접법)
- (2) 조사 및 분석, 관련 정책 의견 수집
- (3) 안정적인 강원살이 기반마련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의제 발굴

4)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경제적 기반마련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 마련을 위한 방향 제시
- (2) 살고 싶은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환경개선 방향과 정책

2. 연구 진행 범위

- 1) 공간적 범위 :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 2) 대상적 범위 : 강원도 내 청년 및 소상공인
- 3) 시간적 범위 : 2014년 1월 ~ 2022년 3월
- 4) 내용적 범위
 - (1) 정책 및 현황 분석
 - (2) 팬데믹 시대 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대응 사례
 - (3)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 (4) 안정적인 강원살이 기반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 (5) 결론 및 정책제언

3. 연구 수행 과정

연구 수행 과정

과 정	내 용	방 법
문헌연구	연구설계 → 연구내용 설정 → 자료분석	정부발표자료, 사례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 비교·분석
실태조사	· 정책과 정책운영 실태 조사 · 설문조사	정책자료, 설문(네이버폼 활용)
심층분석	· 설문분석 · 청년 관련 정책과 설문조사 시사점 발굴	설문자료 분석, 정책 비교·분석
정책제언	강원도형 청년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제시	정책 제언

1) 연구 설계 및 주제 선정

- 강원 지역의 청년들과 청년 소상공인들의 현주소, 지역 청년인구의 감소에 대한 현황과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주제를 정해본다.

2) 연구 내용 및 과정 설정

- 강원 지역의 청년들과 청년 소상공인들의 현 상황을 전국의 일반현황과 비교 분석해본다.
- 전국의 청년 및 소상공인들의 일반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찾아본다.

3) 연구 내용 자료 분석 및 사례 분석

- 이론적, 정책적 배경과 주요 내용, 특징 등을 공통점과 개별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자료와 사례에 대해 분석한다.

4) 설문 - 자료 분석을 토대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한다.

5) 연구 자료 정리 및 전문가 자문

- 분석자료 및 정책을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의 시사점과 정책 의제를 발굴한다.

6) 결과 도출 및 정책 제언

-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강원살이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추진 방안과 정책 수단을 마련한다.

강원 청년의 지역살이 근황

제2장 강원 청년의 지역살이 근황

제1절 지방 소멸위기의 강원도

1.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in 강원

○ 대한민국의 ‘지방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으로 2005년 33곳에서 2022년 3월 기준으로 106곳으로 증가했다. 전국 소멸위험지수가 평균 0.708인 것에 비해 강원도는 0.450으로 전라남도과 경상북도 다음으로 최하위인 4단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있다.

<표2-1> 전국 지방 소멸위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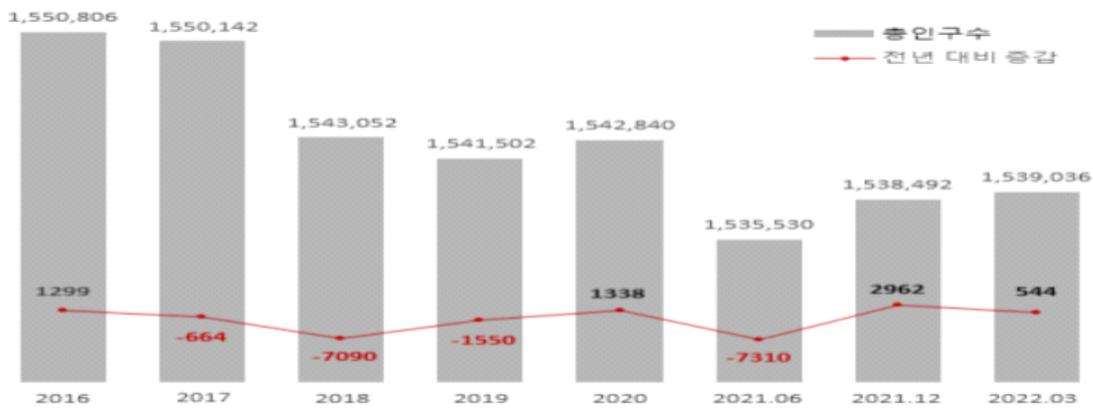
구분	소멸위험지수	소멸단계	명칭
전국	0.708	3	주의단계
서울특별시	0.898	3	주의단계
부산광역시	0.569	3	주의단계
대구광역시	0.655	3	주의단계
인천광역시	0.853	3	주의단계
광주광역시	0.859	3	주의단계
대전광역시	0.838	3	주의단계
울산광역시	0.805	3	주의단계
세종특별자치시	1.319	2	소멸위험 보통
경기도	0.915	3	주의단계
강원도	0.450	4	소멸위험지역
충청북도	0.564	3	주의단계
충청남도	0.525	3	주의단계
전라북도	0.449	4	소멸위험지역
전라남도	0.373	4	소멸위험지역
경상북도	0.405	4	소멸위험지역
경상남도	0.541	3	주의단계
제주특별자치도	0.693	3	주의단계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22년 3월 기준 지역 소멸위험지수

○ 강원도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총 인구수가 7,310명이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강원도의 2022년 강원도의 18개 시·군별 지방 소멸 위험지수 지표에 주의단계 지역인 속초시, 춘천시, 원주시 3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군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강원도 전체 비중의 83.3%를 차지하는 큰 수치이다.

<표2-2> 강원도 총인구 현황

(단위 : 명)



출처 : 국가통계 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22년 3월 기준, 강원도 총인구 현황

<표2-3> 강원도 인구 증감

(단위 :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인구수	1,550,142	1,543,052	1,541,502	1,542,840	1,538,492
증감수	▽664	▽7,090	▽1,550	△1,338	▽4,348

출처 : 강원통계정보, 연도별 2021년 기준

○ 강원도 시·군별 인구 현황을 보면, 춘천시, 원주시, 속초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원주시의 기업도시 이전으로 인해 일시적인 인구증가가 있었으나, 2021년 4,348명이 다시 감소되었다.

<표2-4> 강원도 시·군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행정기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강원도	1,544,442	1,549,507	1,550,806	1,550,142	1,543,052	1,541,502	1,542,840	1,538,492
춘천시	275,791	277,997	280,707	280,514	280,640	281,291	282,765	284,594
원주시	327,292	332,995	337,979	341,337	344,070	349,215	354,376	357,757
강릉시	215,807	214,560	213,846	213,952	212,957	213,442	213,321	212,965
동해시	94,562	93,895	93,297	92,851	91,272	90,522	90,593	90,081
태백시	48,258	47,501	47,070	45,888	44,858	43,866	42,719	40,844
속초시	82,432	81,992	81,793	82,273	81,682	81,786	82,665	82,791
삼척시	72,314	70,839	69,599	68,514	68,326	67,228	65,243	63,429
홍천군	70,451	70,336	70,076	70,340	69,949	69,150	69,242	68,365
횡성군	45,373	45,777	45,991	46,281	46,726	46,575	46,472	46,481
영월군	40,191	40,216	40,073	40,067	39,730	39,127	38,662	37,904
평창군	43,660	43,500	43,318	43,092	42,610	42,106	41,681	40,996
정선군	39,425	39,197	38,718	38,173	37,700	37,271	36,870	35,675
철원군	47,590	48,799	48,013	47,185	46,413	45,584	44,699	43,340
화천군	27,143	27,020	26,264	26,022	25,084	24,917	24,857	24,195
양구군	23,888	24,089	24,010	23,835	23,408	22,764	22,278	21,748
인제군	32,475	33,255	32,720	32,582	32,136	31,672	31,694	32,165
고성군	30,269	30,060	30,114	30,029	28,144	27,260	26,757	27,249
양양군	27,521	27,479	27,218	27,207	27,347	27,726	27,946	27,913

출처 : 강원통계정보, 연도별 2021년 기준

<표2-5> 강원도 시·군별 지방 소멸위험지수

구분	소멸위험지수	소멸단계	명칭
영월군	0.208	4	소멸위험지역
양양군	0.219	4	소멸위험지역
횡성군	0.204	4	소멸위험지역
평창군	0.205	4	소멸위험지역
고성군	0.241	4	소멸위험지역
정선군	0.211	4	소멸위험지역
홍천군	0.260	4	소멸위험지역
태백시	0.263	4	소멸위험지역
삼척시	0.317	4	소멸위험지역
철원군	0.364	4	소멸위험지역
화천군	0.400	4	소멸위험지역
동해시	0.408	4	소멸위험지역
양구군	0.428	4	소멸위험지역
인제군	0.435	4	소멸위험지역
강릉시	0.472	4	소멸위험지역
속초시	0.633	3	주의단계
춘천시	0.745	3	주의단계
원주시	0.844	3	주의단계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22년 3월 기준 지역 소멸위험지수

2.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와 인구변동

1) 전국적인 지역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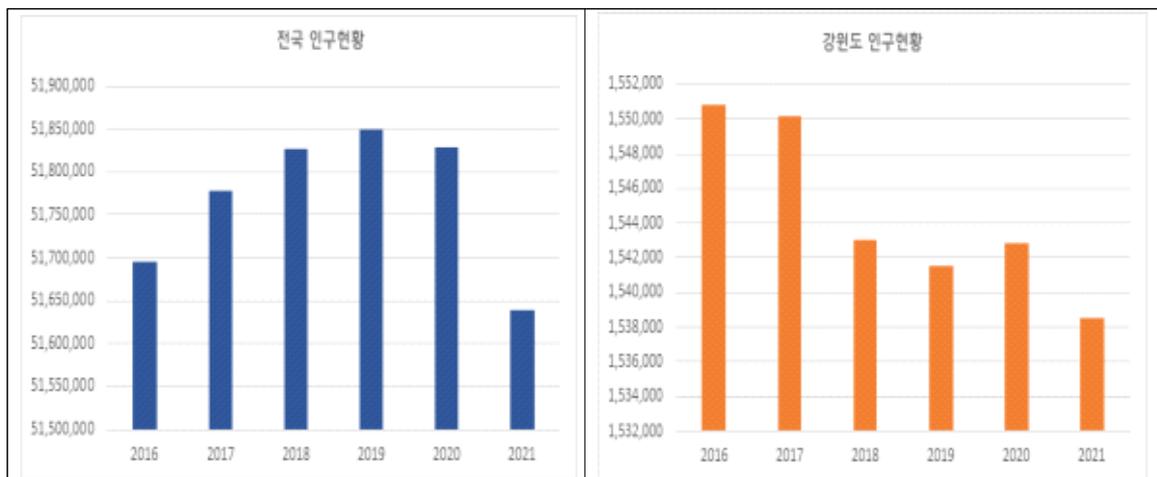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편의 시설, 교통의 편리함은 인구 집중화를 야기시키고 지방과 수도권간의 격차를 만들고 있다. 또한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령 불균형이 지역사회의 경제구조를 크게 쇠퇴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2018년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면서 주목받게 되었는데 여기에 2020년 팬데믹의 등장으로 지역사회가 경직되어 인구문제가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수도권의 인구 순유입률이 급격히 증가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축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팬데믹에 의한 혼란과 위기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문제와 실질적으로 맞닿아 있음을 뜻하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청년 인구의 유출과 감소는 지역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과 이를 실행시킬 인적 자원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는 크나큰 문제이다.

결론은 전국의 인구 감소 문제와 저출산, 지역 간 불균형한 인구이동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표2-6> 전국 및 강원 인구 증감 현황

(단위 : 명)



출처 : 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 총인구수

2) 지방소멸 위기 강원도의 청년 현황

○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청년인구 평균비율이 하위권인 13위로 평균비율이 23.7%인데 이는 전국 비율인 27.6%에 못 미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표2-7> 시·도별 청년인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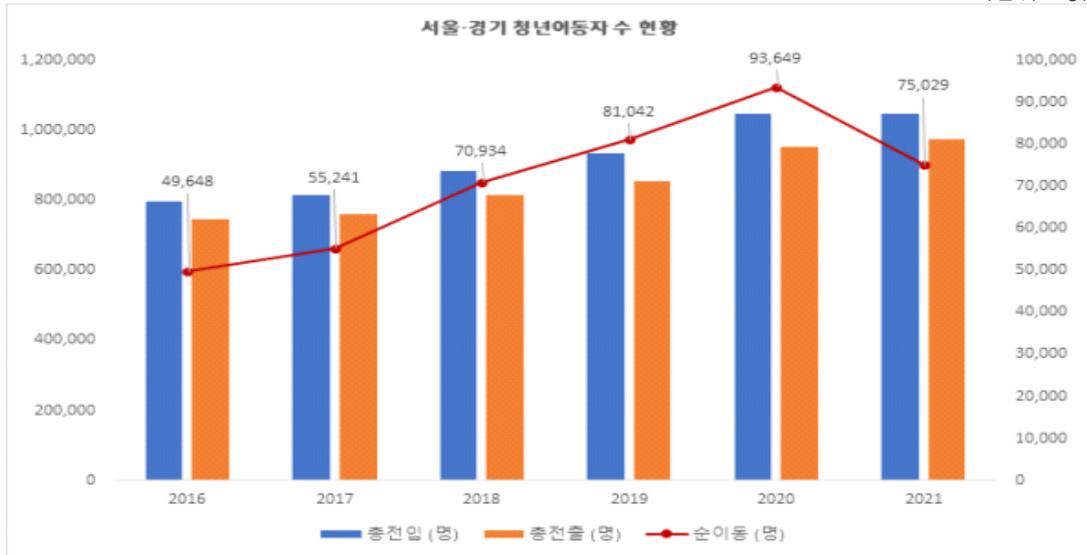
구분	총인구	2022.03		
		청년인구	비율	순위
전국	51,610,695	1,445,492	27.6	-
서울	9,506,778	3,019,245	31.8	1
부산	3,343,504	869,039	26.0	8
대구	2,380,494	636,388	26.7	7
인천	2,952,699	844,463	28.6	5
광주	1,438,463	416,355	28.9	3
대전	1,450,057	426,586	29.4	2
울산	1,118,010	299,728	26.8	6
세종	377,296	107,919	28.6	4
경기	13,575,936	3,938,230	29.0	3
강원	1,539,036	364,505	23.7	13
충북	1,597,484	412,373	25.8	9
충남	2,119,099	531,922	25.1	11
전북	1,782,205	419,534	23.5	14
전남	1,829,501	401,328	21.9	16
경북	2,619,641	591,526	22.6	15
경남	3,303,274	792,385	24.0	12
제주	677,218	173,966	25.7	10

출처 : 국가통계 포털,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대 주민등록인구,(만18~39세) 2022.03

○ 서울 경기권의 청년이동자 수 현황에서 꾸준한 전입자수의 증가가 있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순이동자수가 12,607명 크게 상승했다가 2021년에 전년도 대비 18,620명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2-8> 서울·경기 청년이동자 수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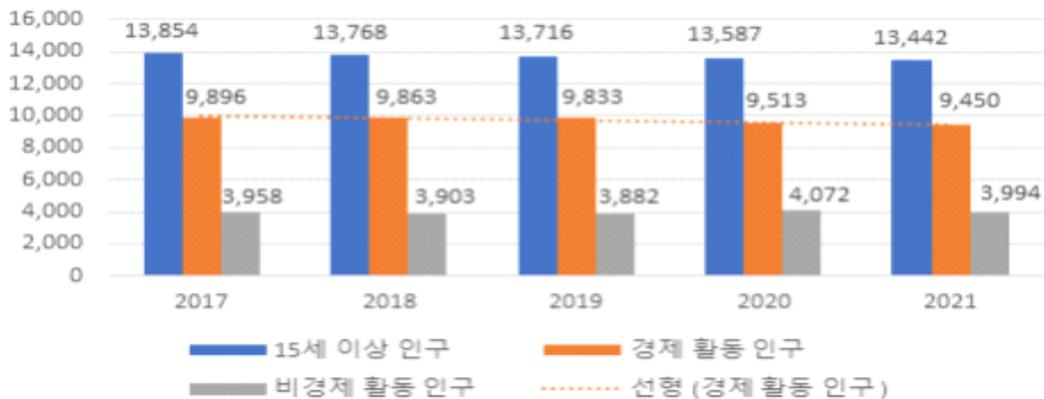


*순이동 (총전입 - 총전출) *연령 (20세~39세)
출처 : 통계청, 국가 통계포털, 시군구 이동건수

○ 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전후를 비교해 보면 경제인구의 감소와 비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가 확인 된다.

<표2-9> 전국 청년 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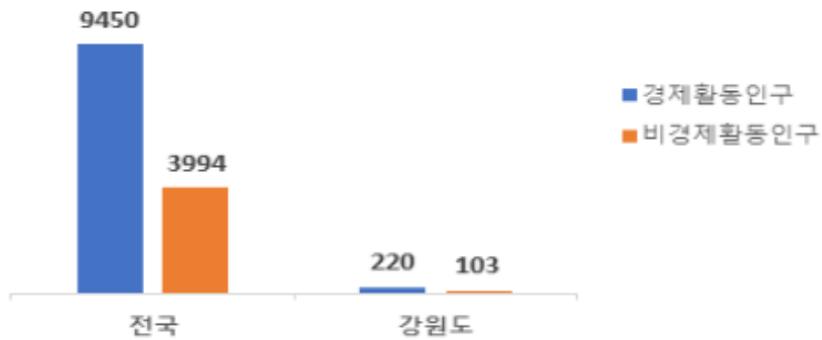


출처 : 국가통계 포털, 경제활동 인구조사 행정구역(시도)/경제활동인구, 2021

○ 2021년 12월 기준 시·도별 청년 인구 경제 활동 현황에서 강원도는 전국 경제활동 참가율 70.0%에 못 미치는 68.3%이며 고용률 역시 전국평균 66.4%에 못 미치는 64.8%에 이르고 있다.

<표2-10> 시·도별 청년 경제활동 현황 (청년인구)

(단위 : 천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국	9,450	3,994	70.0	66.4
서울	2,150	738	74.3	69.5
부산	537	284	65.5	62.2
대구	408	177	69.8	66.4
인천	560	214	72.1	68.4
광주	253	144	64.0	60.8
대전	292	127	70.3	67.3
울산	182	93	65.0	61.7
세종	71	35	64.9	63.2
경기	2,641	1,042	71.2	67.6
강원	220	103	68.3	64.8
충북	286	124	69.9	67.6
충남	381	173	68.5	66.2
전북	251	143	64.2	61.9
전남	230	109	67.4	64.8
경북	371	206	64.1	60.8
경남	505	239	67.1	62.9
제주	114	46	70.8	67.0

주 : 연령대에서 19세가 제외됨. 20-39세로 산정함
출처 : 국가통계 포털, 경제활동 인구조사 행정구역(시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2021

○ 강원도의 팬데믹 시기 청년들의 경제활동 현황은 시·도별 청년 취업·실업 현황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전국 청년취업자 평균 비율은 33.5%인데 비해 강원도의 청년취업자 비율은 26.2%로 전국 하위수준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속에서도 강원도의 청년 취업 현황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표2-11> 시·도별 청년 취업·실업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취업자			실업자		
	전체취업자	청년취업자	비율	전체실업자	청년실업자	비율
전국	27,273	9,134	33.5	1,037	326	31.4
서울	5,055	2,047	40.5	257	90	35.0
부산	1,657	518	31.3	58	19	32.8
대구	1,217	396	32.5	47	13	27.7
인천	1,563	541	34.6	66	20	30.3
광주	745	243	32.6	28	9	32.1
대전	785	285	36.3	27	10	37.0
울산	555	175	31.5	21	6	28.6
세종	185	70	37.8	4	1	25.0
경기	7,150	2,566	35.9	272	87	32.0
강원	809	212	26.2	30	8	26.7
충북	897	282	31.4	23	8	34.8
충남	1,193	375	31.4	28	8	28.6
전북	953	246	25.8	21	7	33.3
전남	985	224	22.7	24	7	29.2
경북	1,410	356	25.2	47	13	27.7
경남	1,732	484	27.9	73	18	24.7
제주	383	113	29.5	12	4	33.3

주 : 취업자의 경우, 만 15~39세로 하며, 실업자의 경우 만 15~29세로 한정함.
출처 : 국가통계 포털, 경제활동 인구조사 행정구역(시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2021

<표2-12> 강원도청년 취업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강원도					
	전체 취업자	증감수	청년 취업자	증감수	비율	증감률
2009	695		254		36.5	
2013	706		222		31.4	
2017	790		234		29.6	
2018	789	▽1	228	▽6	28.9	▽0.7
2019	811	△22	227	▽1	28.0	▽0.9
2020	795	▽16	216	▽11	27.2	▽0.8
2021	809	△14	212	▽4	26.2	▽1

주 : 취업자의 경우, 만 15~39세로 하며, 실업자의 경우 만 15~29세로 한정함.
출처 : 국가통계 포털, 경제활동 인구조사 행정구역(시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연도별

제2절 청년들의 지역살이 일반현황

1. 팬데믹 시기의 대한민국 강원도

팬데믹 시기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삶의 방식과 영역에 변화를 겪었다. 줌 같은 비대면 플랫폼, 배달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등이 코로나 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혜를 받아 크게 성장했으며 노동시장 역시 비대면 재택근무의 방식으로 업무형태가 변화하였는데 이에 따른 돌봄, 가정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육 분야 역시 원격화 수업의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각자의 다른 환경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수준의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반면에 경기 침체로 인해 노동시간은 줄고, 회식 등의 소비활동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상권은 크게 붕괴하여 서민들의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들은 부채비율이 전 세계 1위다.

코로나 지원으로 금리인하가 진행되고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해 잠깐 소비가 트이는 듯 했지만 곧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일어나 가계의 부채 비율을 더욱 가중시켰다. 지방 역시 비숙련 노동자인 청년과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관광 및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비수도권지역의 관광경제 위축은 자영업자 전체비율 중 24.6%가 붕괴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는 해당 관련 직종 취업자의 실직으로까지 직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광이나 문화예술 분야도 침체와 붕괴로부터 다시 회복하게 될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전국의 지위별 취업자 인구현황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현황을 확인해 본바, 2020년 이후로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의 감소와 임금근로자의 증가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인구 현황에서 역시 자영업자의 인구감소와 임금근로자의 인구증가 변동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2-13> 전국/강원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인구현황

(단위 : 천명)

		종사상 지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4	
		총계	26,725	26,822	27,123	26,904	27,273	28,078	
전국	비 임 금 근 로 자	계	6,791	6,739	6,683	6,573	6,520	6,573	
		자 영 업 자	소계	5,682	5,638	5,606	5,531	5,513	5,60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08	1,651	1,538	1,372	1,307	1,36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4	3,987	4,068	4,159	4,206	4,241
		무급가족 종사자	1,110	1,101	1,077	1,042	1,007	969	
	임 금 근 로 자	계	19,934	20,084	20,440	20,332	20,753	21,506	
		상용근로자	13,428	13,772	14,216	14,521	14,887	15,641	
임시근로자		4,992	4,851	4,795	4,483	4,634	4,715		
일용근로자		1,514	1,460	1,429	1,328	1,231	1,150		

		종사상 지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4	
		총계	790	789	811	795	809	826	
강원도	비 임 금 근 로 자	계	264	256	263	250	242	240	
		자 영 업 자	소계	207	202	208	198	196	19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9	41	43	40	42	4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68	161	165	159	154	158
		무급가족 종사자	57	54	55	52	46	41	
	임 금 근 로 자	계	526	533	549	544	567	587	
		상용근로자	348	353	369	375	375	400	
임시근로자		139	138	140	132	146	148		
일용근로자		39	42	40	38	47	38		

[출처] 행정구역(시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22년 4월 기준

○ 업종별 특성화에 따른 경기회복 유형화는 경기회복을 5가지 그래프 유형으로 분류해 놓았다. 천천히 회복하는 U자형, 급격히 회복하는 V자형,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 침체하는 L자형, 회복과 침체를 반복하는 W자형, 코로나 또는 정서 등 외부사항에 의한 특수유형인 S자형과 역V형이다.

<표2-14> 업종별 특성화에 따른 경기회복 유형화

유형		특징	업종
V형	빠른 회복형	대면성 높음 대체성 낮음	테마파크, 미용실, 뮤지컬 공연, 색조 화장품 동네 병원(내과·소아과·치과 등), 오피스 지역 편의점 방문형 서비스(학습지·가사지원 서비스 등)
U형	완만한 회복형	대면성 높음 대체성 낮음	해외여행·면세점, 성형외과(외국인 대상) 노래방, 헬스클럽, 대형마트 출장, 비즈니스·관광객 대상 호텔 정장룩
W형	물결형	대면성 높음 '사회적 거리두기' 민감	대중교통, 식당, 카페, 술집, 극장 복합쇼핑몰, 백화점, 특수 지역 편의점
S형	가속형	언택트·트렌드 부합	온라인쇼핑, 배달, 배송 캠핑 관련, 국내 휴양지 및 호텔, 호캉스, 골프 홈트, HMR, OTT 서비스, 주거지역 편의점 DIY산업, 애슬레저룩, 건강기능식품
^(역V)형	코로나 특수형	빈사 수요 보복 소비	화상 커뮤니케이션, 국내여행, 사치품, 자동차극장, 가정용 가구, 대형TV·프로젝터·PC, 완구·과자 성형외과(내국인 대상), 정신과 피부 관리, 기초 화장품 홈웨어·라운지웨어·원마일웨어룩

[출처] 트렌트 코리아 2021 저자-김난도

2. 팬데믹 시기의 청년들의 강원살이

팬데믹 시기의 강원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

팬데믹 이전(2020년 이전)의 삶의 만족도와 이후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불만족의 상승과 만족도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이 도시보다 만족도가 낮고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해 봤을 때 만족은 2019년에 비해 하락, 불만족은 15.8%에서 19%로 3.2% 상승하였다.

<표2-15> 전국 삶의 만족도

(단위 : %)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9	2021	2019	2021	2019	2021	2019	2021	2019	2021
전국	14.1	9.8	25.0	24.2	44.2	43.1	12.7	18.1	4.0	4.8
서울특별시	14.1	9.3	26.5	24.8	42.0	42.3	13.0	18.1	4.4	5.5
부산광역시	9.9	6.8	23.9	24.3	47.3	46.4	15.5	16.6	3.4	5.9
대구광역시	11.6	9.4	22.9	21.6	47.0	46.0	15.5	19.6	3.1	3.5
인천광역시	17.1	10.3	26.5	20.8	40.8	45.9	11.9	17.3	3.6	5.7
광주광역시	16.7	10.3	24.1	27.8	43.7	42.5	11.1	15.3	4.5	4.2
대전광역시	16.6	9.5	25.5	30.2	41.2	38.7	13.0	17.4	3.7	4.2
울산광역시	12.1	13.2	27.5	23.3	46.3	39.6	11.0	18.3	3.1	5.6
세종특별자치시	19.6	16.0	33.6	30.1	38.1	34.8	6.9	15.0	1.8	4.1
경기도	15.4	10.0	24.5	23.3	42.7	41.0	12.5	20.5	4.8	5.2
강원도	13.6	12.2	23.8	25.3	46.4	43.6	12.8	15.0	3.4	4.0
충청북도	12.7	11.0	24.6	24.5	48.2	46.2	11.3	14.8	3.1	3.4
충청남도	15.4	12.4	22.4	27.8	45.1	41.7	12.9	15.3	4.2	2.8
전라북도	12.1	10.5	23.9	27.7	50.7	42.9	11.0	15.7	2.3	3.2
전라남도	12.3	11.6	27.6	25.9	45.8	44.3	11.3	14.6	3.1	3.5
경상북도	12.7	7.7	25.1	19.8	44.2	46.9	13.5	20.8	4.5	4.8
경상남도	13.1	8.2	24.5	24.1	47.4	45.4	11.8	18.0	3.2	4.2
제주특별자치도	17.3	13.7	22.9	24.8	43.2	41.7	14.0	15.8	2.6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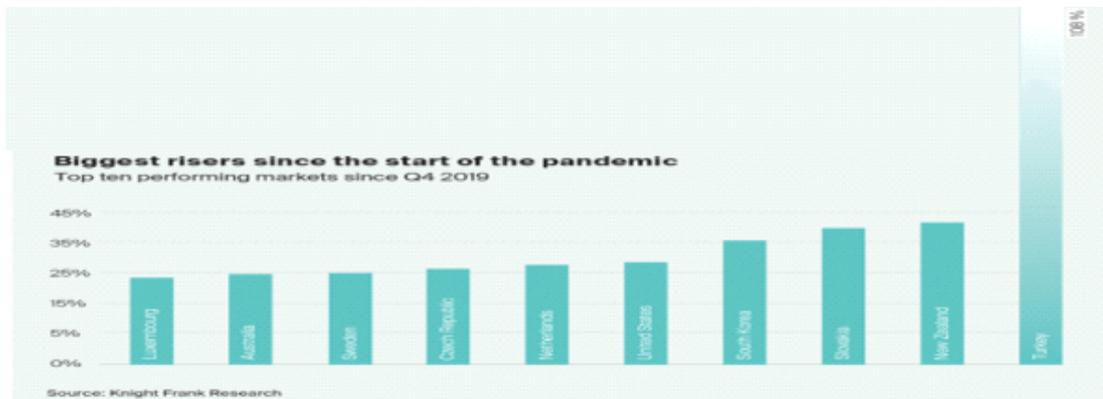
출처 : 국가통계 포털, 시도/시/군/구 삶의 만족도, 2019/2021

○ 팬데믹 시기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 부동산! 부동산은 청년들의 강원살이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팬데믹과 함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보급 문제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2019년 4분기) 이후 누적 집값 상승률이 높은 10개국 국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집값 상승률 4위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집값이 안정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이후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전국 평균이 1.2% 감소인 것에 비해 강원도는 2.2%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2-16>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2019년 4분기) 이후
누적 집값 상승률 상위 10개국

(단위 : %)



출처 : 영국 부동산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 2022년 6월 1일

<표2-17> 전국/강원도 주택보급률

(단위 : %)



출처 : 국가통계 포털, 주택 보급률(시/도), 연도별

○ 부동산에 대한 가열화 된 투자심리도 한몫을 했다.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너도나도 대출로 부동산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는 자영업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결국 가계부채의 증가에 일조하게 되었다. 청년들 역시 부동산 시장의 여파와 영끌족의 증가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청년 1인 가구 비율과 이에 비례하는 출산율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2-18> 전국 가구 부채 비율

(단위 : 전가구 평균/만원)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부채(만원)				
전국		7,099	7,668	7,910	8,256	8,801
수도권	서울	9,690	10,073	10,635	11,077	11,716
	인천	6,333	7,065	7,277	8,498	8,907
	경기	9,028	9,850	10,217	10,213	11,026
비수도권	부산	5,181	6,096	6,217	6,712	8,339
	대구	6,424	7,670	7,546	7,894	8,594
	광주	4,312	4,785	5,003	6,035	6,593
	대전	6,158	6,675	6,763	6,562	8,106
	울산	7,352	7,568	6,672	6,776	6,963
	세종	-	10,254	10,145	10,793	13,063
	강원	4,153	4,508	4,924	5,619	5,539
	충북	5,195	5,112	5,195	5,547	5,064
	충남	5,941	5,590	5,225	5,644	5,802
	전북	4,121	4,376	4,973	5,378	5,869
	전남	4,188	4,561	4,765	4,545	4,622
	경북	4,719	5,082	5,067	5,228	5,014
	경남	6,141	6,728	6,804	7,067	6,751
제주	5,942	6,466	7,289	7,869	7,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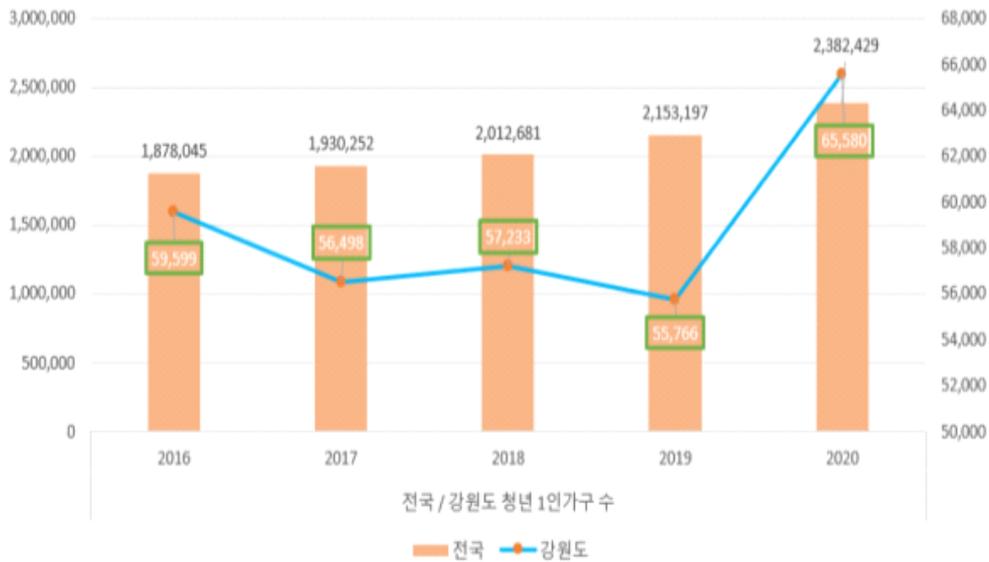
출처 : 국가통계 포털, 평균 가구 자산 및 부채(시도)

○ 청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비혼 주의와 올로족 역시 팬데믹 시기를 맞이하여 그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으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청년 1인 가구 수는 소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2020년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강원도 역시 2020년 9,814명의 증가로 1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혼인 통계 추이를 보면 전국적인 혼인을 감소가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 전국 0.5% / 강원도 0.6%로 가장 큰 증감률을 보였으며, 2021년에는 3.7%의 최저의 혼인율을 기록하여 강원도는 전국 대비 낮은 혼인율을 기록하였다.

<표2-19> 전국/강원도 청년 1인가구 수

(단위 : 명)



	전국/강원도 청년 1인가구 수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1,878,045	1,930,252	2,012,681	2,153,197	2,382,429
강원도	59,599	56,498	57,233	55,766	65,580

출처 : 「인구총조사」, 통계청 2020.12

<표2-20> 전국/강원도 혼인 추이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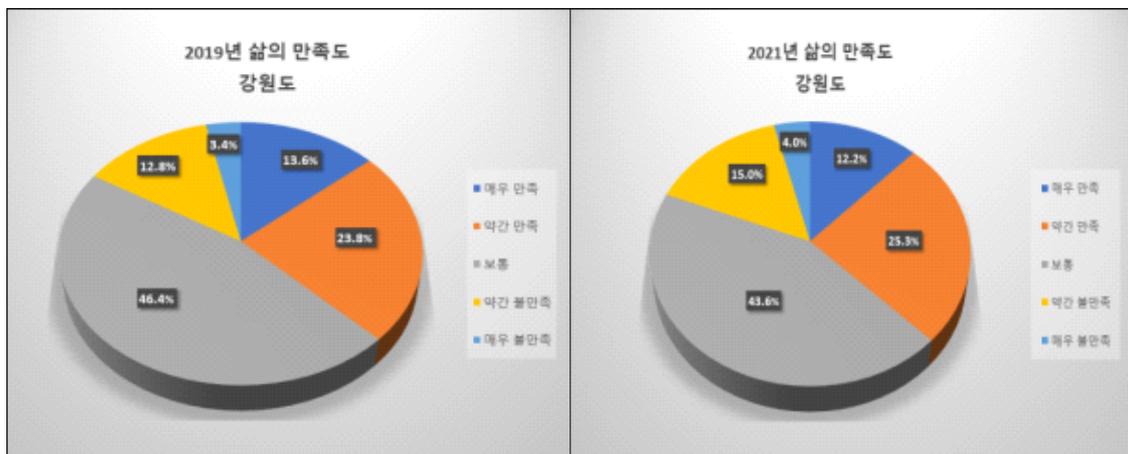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혼인 건수	329,087	322,807	302,828	264,455	257,622	239,159	213,502	192,507
	조혼 인율	6.6	6.4	5.9	5.2	5.0	4.7	4.2	3.8
강원도	혼인 건수	8,338	7,946	7,876	7,295	6,994	6,762	5,868	5,622
	조혼 인율	5.5	5.2	5.1	4.7	4.6	4.4	3.8	3.7



출처 : 국가통계 포털, 시도/성/연령별 혼인율, 연도별 2021.12
* 조혼인율 :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

<표2-21> 강원도 삶의 만족도

(단위 : %)



출처 : 국가통계 포털, 시도/시/군/구 삶의 만족도, 2019/2021

○ 경기의 침체와 사회적 불안감, 온라인의 상용화 등, 환경적인 변화와 함께 가상화폐시장의 확산과 성장 역시 청년들의 경제관념과 소비의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의 경직으로 물가와 여가생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강원도 역시 전국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가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2-22> 지역별 연간 여가생활을 위한 한 달 평균 지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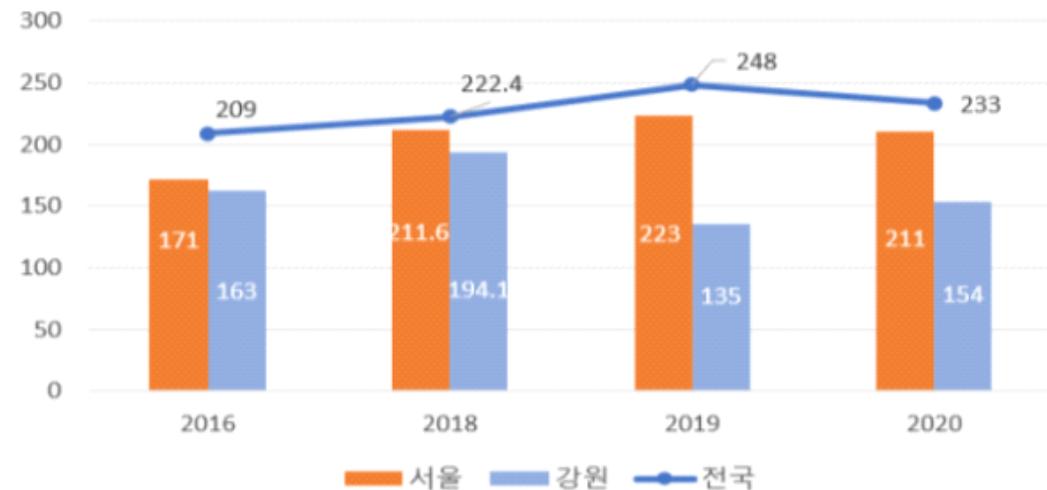
(단위 : 천원)



출처 :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표2-23> 지역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가비용 한 달 평균 금액

(단위 : 천원)



출처 :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청년 정책 및
청년 관련 정책 사례

제3장 청년 정책 및 청년 관련 정책 사례

제1절 청년 정책 현황

1. 청년정책 기본 현황

2019년 제정되고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어진 「청년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발전’을 청년정책의 목적으로서 설정하고 있으며, 청년의 창업·능력개발·주거·복지·금융생활·문화활동·국제협력 지원에 대한 기본시책을 열거하여(제17조~제24조) 각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광역지방단체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등 청년 기본조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7개 지자체 중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정책이 시행되는 기준을 비교해 보면 농어촌 지역의 수치가 낮아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특히, 강원도는 전국 기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다.

<표3-1> 전국 운영 현황

(단위 : 개)

구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전국	370	100	113	228	75
강원	19	5	17	9	8

출처 : 강원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타시도 청년정책, 강원도 청년 정책

2. 2022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기본내용

1) 2022년 1월 10일 국무 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에서 발표한 정책브리핑에서 청년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선정한 △구직·창업, △주거, △생활·문화 등 6개 분야 24개 과제에 대한 지원내용·기준 및 신청방법 등 지원대상에 실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발표가 있었다.

2) 구직과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일반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취업지원,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과 구직단념 청년의 의욕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이 시행되었고, 초기 창업청년의 사업자금, 벤처투자를 통한 지원, 청년테크스타보증과 청년전용 창업융자 등 사업지원도 도입되었다.

3)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는 취업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만들어졌고,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과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교통비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청년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제도가 시행된다.

4) 주거지원 정책분야에서는 주거 독립한 저소득 청년의 월세지원 제도와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급여 지원, 무주택 청년의 월세대출지원, 무주택 청년의 전·월세자금 보증금 지원정책이 시행된다.

5) 목돈마련을 위한 정책으로는 소득에 따라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제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관리 지원제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관리 지원제도, 군 복무 중인 장병의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제도가 진행된다.

6) 교육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청년 지원정책으로 대학생 100만 명의 반값 등록금 지원, 군 복무 병사에게 자기 개발비 지원,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에 대한 이자면제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7) 문화·생활 지원으로는 대학생·사회 초년생의 자금대출 지원,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청년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 기초·차상위 청년의 문화생활 지원을 진행한다.

3. 강원도 청년 정책 현황

1) 강원도 청년 정책 기본 추진 방향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팬데믹의 확산으로 이를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상황에 맞는 올바른 정책의 이해와 강원도에 맞는 정책의 반영 및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지역정착과 기반마련을 이루어 청년들의 지역이탈을 막고 강원 미래가 될 인재의 양성과 육성으로 이어가도록 기반으로써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기본법’, ‘강원도 청년 기본조례’와 정부 정책이 방향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강원도 청년 현황 분석과 실태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표3-2> 강원도 청년정책 기본 추진방향

구분	방향성	세부방향
연계성 확보	정부 청년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이 부합하도록 함. - 또한,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과의 정책적 연계성을 확보
맞춤형 정책사업 도출	강원 청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사업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청년의 기본현황 및 각 분야에 대한 인식, 수요를 반영한 강원 청년의 특성 발굴 - 강원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사업 도출
체계적 청년 정책 설계	장기적, 다각적인 관점의 체계적 청년 정책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취창업 중심의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 주거, 복지, 보건, 청년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 모색 - 강원도 지역적·산업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세부사업

2) 강원도 청년정책 운영현황

강원도 청년 현황 분석과 실태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만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강원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은 정부·청년·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강원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사업을 도출하여,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의 체계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권리·참여 5가지 분야로 과제별 주요 실태를 반영한 세부방향을 설정하였다.

2022년 강원도 청년정책은 5개 분야에서 추진계획에 따라 일자리 (20개/계속과제 16, 신규과제 4), 주거 (1개/신규과제 1), 교육 (14개/계속과제 14), 복지·문화 (6개 /계속과제 4, 신규과제 2), 참여·권리 (3개/계속과제 3)로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총선 이후, 전부의 정책과 지방의 정책 방향이 향후 어떻게 변화 될지에 대한 기대와 예측이 동시에 있게 되는 시점이다.

제2절 팬데믹 시기의 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 활동 사례

분석해 보고자 하는 다음의 사례는 지역사회 청년들이 기반이 된 사례와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의 협력이 기반이 된 청년정착 사례로 선정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뷰 자료, 언론 보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단체의 특성과 방법, 성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대구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1) 단체의 개요

레인메이커 협동조합은 대구시 중구 북성로 104-15에 위치한 청년단체로 지역사회 청년들의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청년단체가 마을의 인적 자원이자 주체가 되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주도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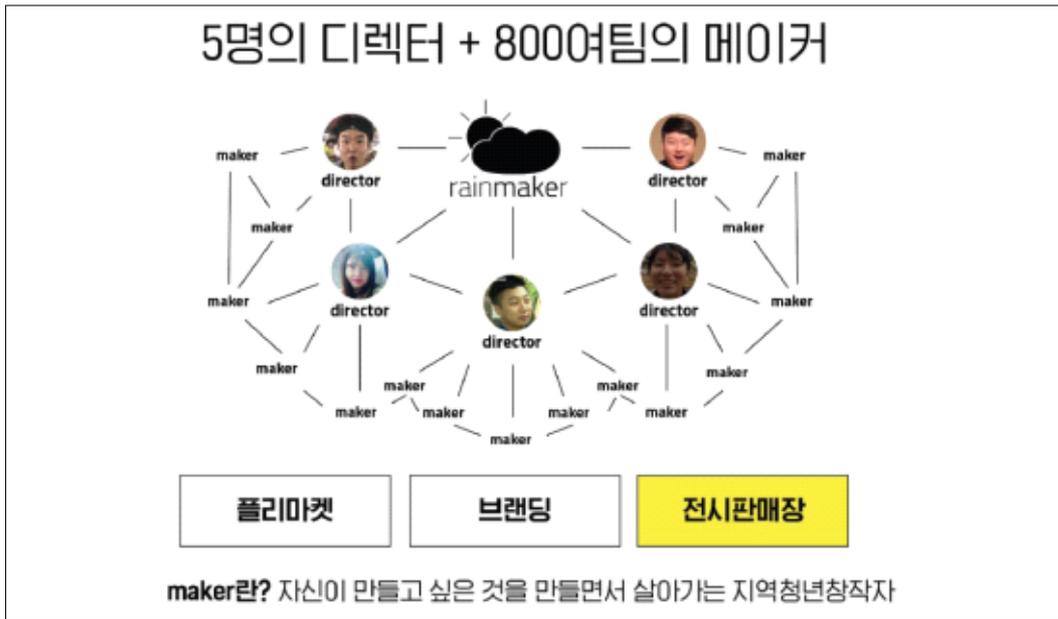
2013년 지역의 청년이 모여 소셜마켓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2014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았으며, 2016년 레인메이커와 소셜마켓 협동조합이 통합되어 레인메이커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대구 지역의 1세대 마을기업으로 자리 잡으며, 2018년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 ‘수창청춘멘션’을 운영하면서 거점이 되어 활동을 확장시켜 나갔으며, 2021년 행정안전부 선정 ‘모두爰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 조직구성

5인의 디렉터와 800여 팀의 메이커로 구성 (메이커 : 지역 청년창작자를 지칭)

<그림 3-1>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조직구성도



3) 주요사업 내용

(1) ‘김광석거리’ 플리마켓 (plea market)

-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며,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품은 지역 청년 창작자들이 2011년 ‘토요방천 컬쳐마켓’을 개설
- 매주 토요일 김광석 거리에서 벌이는 일종의 예술 난장 장터

(2) 소셜마켓(social market)

- 청년 창작자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예술품 전시·판매사업을 진행

(3) 갤러리스토어

- 2015년 소셜마켓+아티스트 브랜드 <SOMA>를 런칭
- 동성로점, 복성로점 등 오프라인 9개 매장, 온라인 4개 매장 운영 중

(4) 브랜딩(branding)

- 상품의 패키지, 로고, 캐릭터 등 지역기업들을 상대로 한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 프로젝트 진행.

4) 운영의 특성

(1) 대화의 장 8개 대화 클럽 운영

① 운영 배경

2018년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후, 1950년대 ‘돼지빠 술집’ 이었던 (대구시 중부 북성로(향촌동) 소재) 공간에서 청년응원카페 ‘다모디소’ 운영 시작. 2020년 HUG의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씨앗융자를 이용해 1920년대 ‘대화장여관’(대구 중구 향촌동)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카페로 재탄생 시켜 그 자리에 청년응원카페 ‘다모디소’를 오픈하여 사회 이슈에서 시사, 문화, 사람들의 관심거리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끌어내 공감하고 공유하며 소통하여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편견을 이해와 발견으로 바꿀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게 됨.

② 운영 프로그램

가. ‘대화의 장’ 운영

나. ‘대화의 꽃’ : 카페운영

다. ‘대화 광장’ : 포토존, 플리마켓

라. ‘대화 주방’ : 대관 서비스를 통해 매번 다른 식당으로 직접 공간 운영 가능함. (외식창업 준비 청년에게 실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간)

마. ‘대화 강당’ : 영화 상영 및 대관 서비스 제공

바. ‘대화 공방’ : 창작자들의 창작 공유 공간

사. ‘대화 스튜디오’ : 창작자들의 공유 오피스 작업을 볼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 (작품 구매 가능)

아. ‘대화 오피스’ : 레인메이커협동조합 공유 오피스 (대화의 장 공간관리)

자. ‘대화 살롱’ : 대화 나눌 수 있는 곳

- talk hour (매주 새로운 주제에 맞추어 자유로운 대화, 인스타그램 주제 게시, 2020년 6월부터 주 1회 토요일 오후 7~10시, 누구나 참여 가능)

- 안녕 낯선 사람 (낯선 사람을 초대해 공연)

- 대환장 파티 (3개월 1회씩 클럽 파티)

<그림 3-2>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공간이미지



(2) 청년 지역공동체로서의 청년 정착을 위한 역할 수행

- 도시재생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구축·운영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청년귀환 프로젝트 운영

5) 단체의 성과

(1) 대구시 지역 내 인력, 시설, 브랜드, 공간 등을 활용해 지역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는 공공성을 추구하며 ‘지역 청년이 주도하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청년형·문화형 마을기업 모델’로 주목받음.

(2) 대구 지역 미대 졸업생 등 청년예술가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창출함으로써 도심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등의 기업성 확보

(3) 대구 지역 800여 팀의 청년 창작자들의 협동과 연대의 비즈니스 생태계 및 협업 플랫폼을 구축한 공동체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자리 잡음.

· 경제적 측면

항목	세부내용
매출액	· 2019년~2020년 : 6억 · 2021년 : 8억
시장성	‘예술가들의 공방촌, 예술시장’ 등 차별화된 사업기획·마케팅 전략으로 청년창작품 고유시장 창출 및 확보
제품성	공장식 획일적 대량생산이 아닌 ‘공방식 소량다품종’ 생산 방식으로 소수의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제품
지속가능성	5명의 디렉터와, 800여 팀의 청년창작 메이커스들의 협동과 연대의 사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업과 시장의 범위와 규모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지역 청년예술가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대구 도심 소셜마켓, 갤러리스토어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

· 공동체성 측면

항목	세부내용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도	대구지역 청년창작가 800여 팀의 메이커스 참여
이익 배분구조	· 5명의 디렉터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 · 미대생 졸업작품 등 25여 건의 소셜 아트 상품 수익금의 70%가 메이커의 몫
민주적·합리적 의사 결정구조	협동조합의 일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 구조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네트워킹	· 지역 미술대학 졸업생 등 대구지역 청년창작자들의 사업 참여와 협력 · ‘김광석거리’의 플리마켓의 다양한 교류 및 참여프로그램

· 지역성 측면

항목	세부내용
지역특화 자원 활용	대구지역 청년창작자들의 창작 및 전시판매 협력 네트워크
지역 기반 인프라 구축	· 대구지역 예술거리, 복합상점, 문화공간 등의 사업기반 ※메이커와 시민의 합작으로 조성한 복합문화공간 ‘수창청춘맨션’
사회적 자본 생산 형성	· 지역연고성 신뢰도(폐쇄적 사회적 자본)와 가치 규범의 동질성을 공유하는 동일 지역, 동업자들이 협업·공조 생태계 및 사업네트워크 구축 ※<내마음은 콩밭 협동조합>, <더풀락협동조합> 등 청년 창업 마을기업의 협업 플랫폼 구축

· 공공성 측면

항목	세부내용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역 주요 상권과 도심을 배경이자 기반으로 하는 플라마켓 및 소셜마켓 이벤트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800여 팀의 청년창업 메이커스
지역주민 역량 강화 및 조직화	지역의 청년창업자들의 사업 역량강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복합문화공간 '소셜마켓' 운영
지역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대구시 지역 내 인력, 시설, 브랜드, 공간 등을 활용해 지역 청년창업자들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촉진하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6) 앞으로의 전망

- (1) 플라마켓, 브랜딩, 전시판매장 등의 주력분야에서 복합문화공간 운영, 자체브랜드 개발, 아트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년 일자리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을 주도적으로 구축
- (2) 마을기업 자체적으로는 2020년 매출액 10억원 규모의 안정된 사회적 경제 조직 모델로 성장

7) 시사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청년창업플랫폼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we make it rain, create a rainbow”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것들을 만듭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함께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가뭇이 든 곳에 단비를 내리게 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인터뷰 내용 중에서 -

- (1)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청년의 주도로 지역을 알아가고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해 나아감으로써 다양성과 존중이 있는 청년주도의 지역사회로서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 (2) 팬데믹으로 더 삭막해진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적인 위축이 더욱 피부에 아리게 와 닿을 지역 청년들에게 경쟁과 평가가 삶의 척도가 되어 버리는 지역살이보다는 따뜻하게 공감하고, 대화 할 수 있는 또래의 동질감과 유대감이 느껴지는 지역살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
- (3) 사회적인 약자라고 느껴지는 청년들의 입장이 누군가의 과거일 수도, 미래일 수 있다. 그 미래와 과거가 청년들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와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역사회의 적극적 활동과 행정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 레인메이커 협동조합은 지역의 낡고 오래 된 것들과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청년들의 시선과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해 내는 방식으로 지역의 문화로 만들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성이 청년들의 공감을 얻었을 때 특성화 된 지역 플랫폼이 형성된다.

2. 서천 ‘삶기술학교’

1) 단체 개요

- (1) 청년마을 1기로 시작된 청년들의 시골정착 프로젝트 ‘삶기술학교’는 도시 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1500년의 전통을 이어온 작은 시골 마을 한산면에서 대안적 삶을 추구하며 나만의 삶기술로 더불어 살아가는 자립공동체로, 도시의 삶기술과 마을의 삶기술을 교환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2)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서 9억 원을 지원했고 이어 이듬해엔 충청도와 서천군이 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지원했으며, 3년째인 2021년에는 그 절반인 2억 원을 지원했다.
- (3) 주민들의 도움으로 빈집 20곳이 청년 공간으로 채워지고, 청년들과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2) 삶기술학교 소개

(1) “나만의 삶을 기술하다.”

삶기술학교 한산캠퍼스는 도시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1,500년의 전통을 이어온 작은 시골마을, 한산면에서 대안적 삶을 추구하며 나만의 삶기술로 함께 더불어 사는 자립공동체이다.

또한, 도시의 삶기술과 마을의 삶기술을 교환하며 ‘삶기술 프로젝트’ 실험을 통해 자기실현을 돕는 대한민국 청년 성장 지원 코칭 시스템이다. 아울러, 삶기술학교는 사회혁신공동체로써 지역 혁신형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전문가, 마을 주민과 함께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해 나아가 ‘로컬 커뮤니티 벤처 생태계’로의 성장을 꿈꾼다.

(2) “당신의 삶기술이 마을이 됩니다.”

삶기술학교는 교수도 학생도 없는 마을 캠퍼스에서 삶기술자(삶지니)가 되어 자립하기 위한 ‘삶’과 ‘일’을 배우며, 나만의 삶기술 프로젝트를 실험한다.

<그림 3-3> 서천 삶기술학교 홍보이미지



3) 삶기술학교 운영 사례

(1)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공간

- ① 청년들이 살 곳과 활동 공간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쓰지 않던 집과 가게를 내주면서 뭐든 해 보라고 했다.
- ② 삶기술학교 청년들의 아지트인 '아트스테이 노란달팽이'도 어느 주민이 5년간 그냥 쓰라고 내준 곳이다.
- ③ 마을에서 무려 100년이나 이어져 온 대장간 한견도 메이커스 페이스로 탈바꿈했다. 대장간 명인이 청년들을 믿고 기꺼이 공간을 내줬다. 이곳에선 버려진 자동차 시트천과 한산 모시로 업사이클링 가방을 만들어낸다.

- ④ 오래된 다방을 코워킹스페이스로, 식당을 유기 동물 보호 카페로, 인쇄소를 독립책방이자 사진관으로 바꿔낸 공간들이 10곳에 달한다.
- 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커뮤니티호텔 ‘H’다. 모시를 사러 전국에서 모여든 상인들의 쉼터였던 서광장 여관을 세련된 레지던스이자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되살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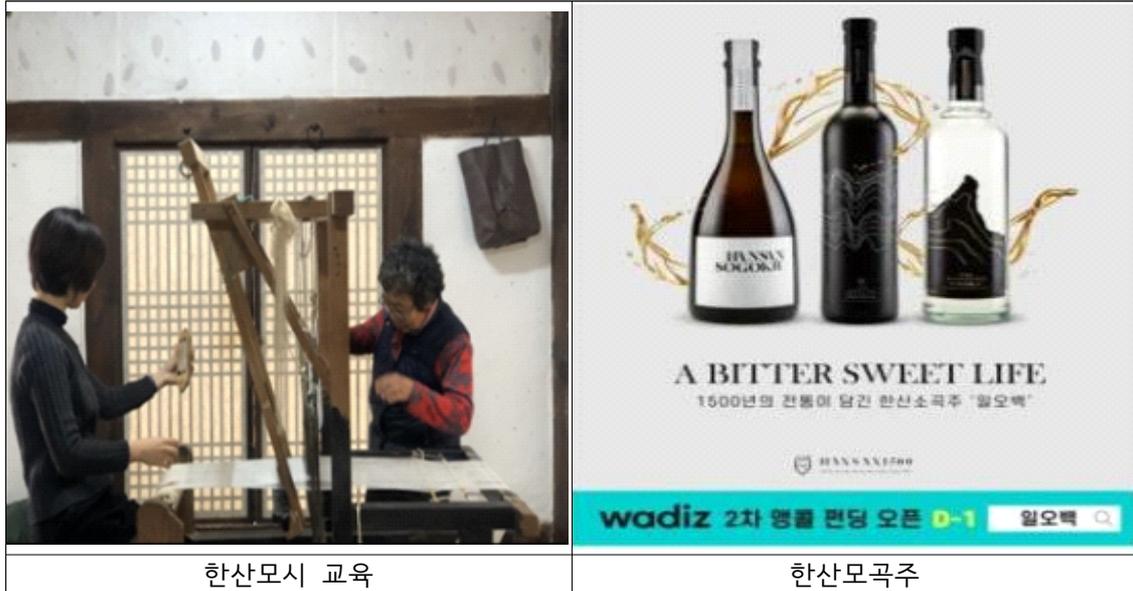
<그림 3-4> 서천 삶기술학교 조성공간 이미지



- (2) ‘1500년 전통 쌀맛 그대로의 한산소곡주’, 지역민의 기술과 청년들의 기술의 협업으로 MZ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2020년 코로나19로 소곡주 매출이 떨어지자 삶기술학교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일주일 만에 술 700병을 팔았다. 청년들이 만든 소곡주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지난해 매출은 1억 원을 넘어섰다. 청년들은 소곡주에 토닉워터와 레몬즙을 섞은 ‘소곡토닉’을 만들어 전통주를 새로운 방법으로 즐기고 있다.
- (3) 지자체의 정책연계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자체의 복지정책, 창업 지원이 진행된다. 정착한 청년들에게는 청년 일자리 주도형 사업지원, 청년 창업지원, 청년 동아리 지원,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전·월세 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과 복지정책들이 연계된다.

4) 삶기술학교 성과

<그림 3-5> 서천 삶기술학교 활동성과 이미지



- (1) 삶기술학교는 도시 청년들이 시골에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3년간 5,500여 명이 삶기술학교를 거쳐 갔고, 서천에 있는 20군데의 빈집이 청년들의 감성이 담긴 미술교습소, 사진관, 독립서점, 대장간 등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했다.
- (2) 삶기술학교에 응시한 청년들은 현재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른다. 2019년 8월부터 현재(2021년 1월)까지 삶기술학교에 입학해 프로젝트를 수행한 청년들은 약 200여 명에 이르고 이들은 350여 개의 콘텐츠를 주민들과 협업으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 예로 한산 모시를 활용해 패션 상품을 제조한다거나 한산 소곡주를 리브랜딩한 ‘일오백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 (3) 삶기술학교를 거쳐 간 인원 중 20여명은 이곳 서천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15개 팀은 창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도 거뒀다.
- (4) 서천군의 인구가 어림잡아 2,700여명인데 삶기술학교 청년들이 발굴한 콘텐츠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참여한 내외부인은 4,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 해결과제

- (1)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끝나도 청년마을이 존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과 현재는 소극주의 산업화에 힘을 쏟고 있다.
- (2) 청년마을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도시에서 온 청년들에게 수혜만 주는 구조에 집중되어 지속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의 보호와 관여가 필요하다.

6) 시사점

- (1) 도시의 삶기술과 마을의 삶기술을 교환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역의 청년정착을 유도하는 과정에 지역민들과 청년들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와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잡음으로 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 (2) 양성된 청년들의 자립성 있는 정착을 위해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단계적 인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역량강화로 지역정착을 위한 기반마련도 필요하지만, 문화적·환경적 개선과 변화를 위한 단계적 과정의 수립이 세워져야 한다.
- (3)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활동거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도와 자기실현의 기회가 지역사회의 성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 (4)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가 완벽하게 체계를 잡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자립 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나아가게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원도 청년 현황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제4장 강원도 청년 현황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제1절 강원도 청년 현황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 내용

강원도 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현황과 안정적인 강원 살이 기반 확립을 위한 설문을 통해 조금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시기를 슬기로운 강원살이로 기회로 삼고자 이에 강원도 18개 시군 만18세 ~ 만39세 청년 698명을 대상으로 강원살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설문조사 과정

- 강원도 청년 실태 및 현황 파악 설문지 작성
- 설문은 강원도 일자리재단과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협력과 자체 홍보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문 진행
- 설문기간 : 2022년 6월 16일 ~ 2022년 6월 30일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100% 진행
- 설문 참여자
- 참여 인원 : 총 698명
- 참여자들에게 커피 쿠폰 배포
- 설문지 문항별 분석 : 2022년 7월 15일 ~ 2022년 7월 31일
- 설문 분석 후 전문가 자문

2) 설문 구성 내용

- 강원도 청년살이 근황
 - 강원살이 생활 및 환경 실태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 강원도 청년들의 의식조사
 - 강원살이에 대한 인식
 -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 일자리에 대한 인식
 - 직장인 또는 창업자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과 비전
 - 구직 or 창업 준비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과 준비
- 강원살이를 위한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방향
 - 안정적인 강원살이 정착을 위한 경제활동
 - 안정적인 고용 및 일자리를 위한 정책
 - 소상공인 및 창업을 위한 기반 정책
 - 슬기로운 강원살이를 위한 환경개선 방향
 -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개선 방향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3) 설문 진행 현황

- 설문 기간 : 2022년 6월 16일 ~ 2022년 6월 30일 (15일간 시행)
- 설문 대상자 : 강원도 18개 시군 거주 만18세 ~ 만39세 청년
- 설문 응답자 수 : 총 698명 참여
- 설문 문항수 : 61문항
- 설문방식 : 비대면 온라인 설문 (네이버 폼)

2. 실태 및 설문 분석

1) 응답자 분포

- 설문응답자는 총 698명으로 남자 368명, 여자 328명 중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681명과 주소지가 타지인 17명으로 만18세 ~ 만39세 청년이다.

<표 4-1> 설문 응답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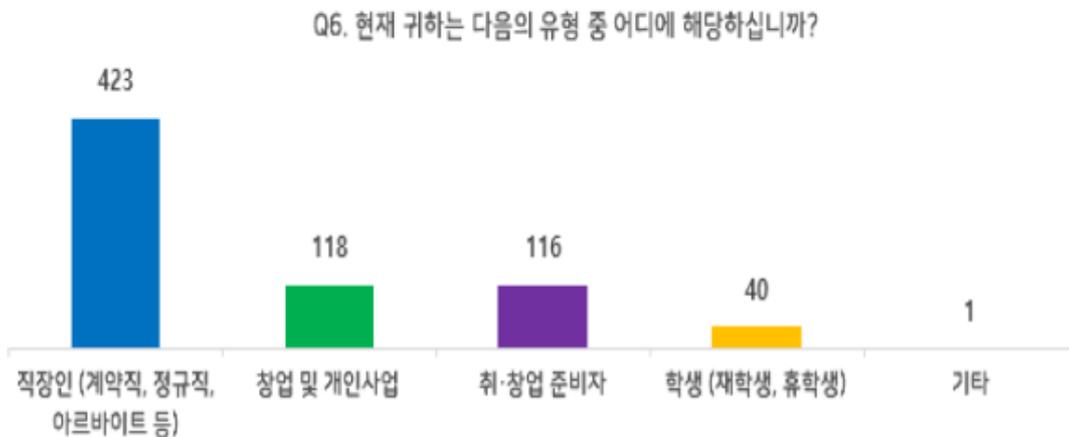
(단위 : 명, %)

연령대	응답자수	분포(%)
18~24세	29	4
25~29세	182	26
30~34세	372	53
35~39세	115	17

- 설문 응답자는 직장이나 창업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 541명과 구직 및 창업준비자, 학생 등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157명으로 진행되었다.

<표 4-2> 설문 응답자 강원살이 유형

(단위 : 명)



2) 응답자 강원살이 일반현황

- 강원도 거주기간은 5년 ~ 10년 미만인 경우가 37%로 가장 많았고, 20년 미만의 거주기간이 86%로 조사되어 이동으로 정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강원도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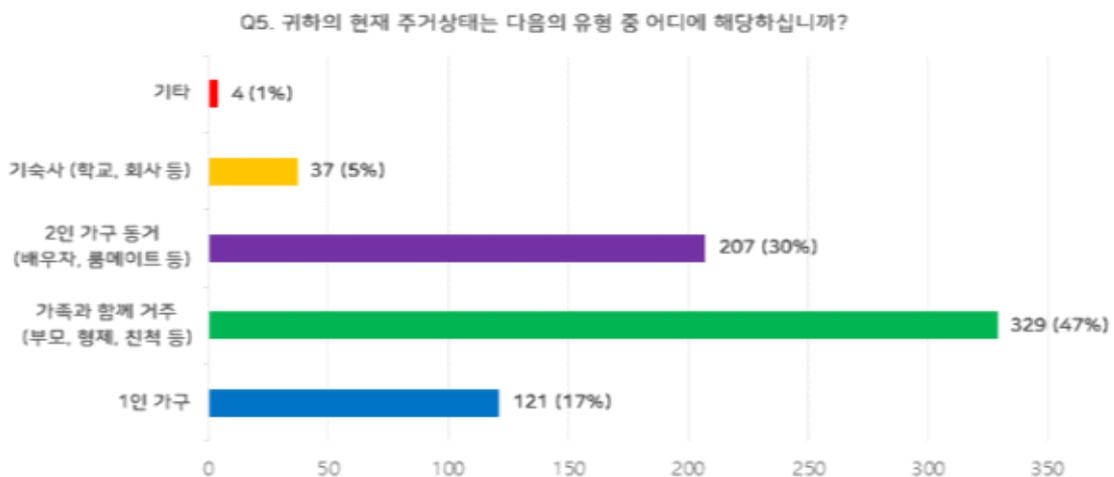
(단위 : 명, %)

거주기간	응답자수	분포(%)
1년 미만	24	4
1~3년 미만	128	18
5~10년 미만	258	37
10년 이상	191	27
20년 이상	97	14

- 주거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47%로 가장 많았고, 2인 동거 형태가 30%, 독립 유형인 1인 가구는 17%, 기타 주거형태 6%가 조사되었다.

<표4-4> 주거 형태

(단위 : 명, %)



■ 강원도 거주 이유로는 직장이 32%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 28%, 학업이 14%로 조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강원도 내에 취·창업을 하고 싶어서 거주한다는 청년이 17%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청년은 강원도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일 반화되고 통계화 된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관점이다. 기타 이 유로는 이동이 편하고, 복잡하지 않은 도시라서, 결혼, 신랑 직장 따라옴 등이 있었다.

<표4-5> 강원도에 거주하는 1차적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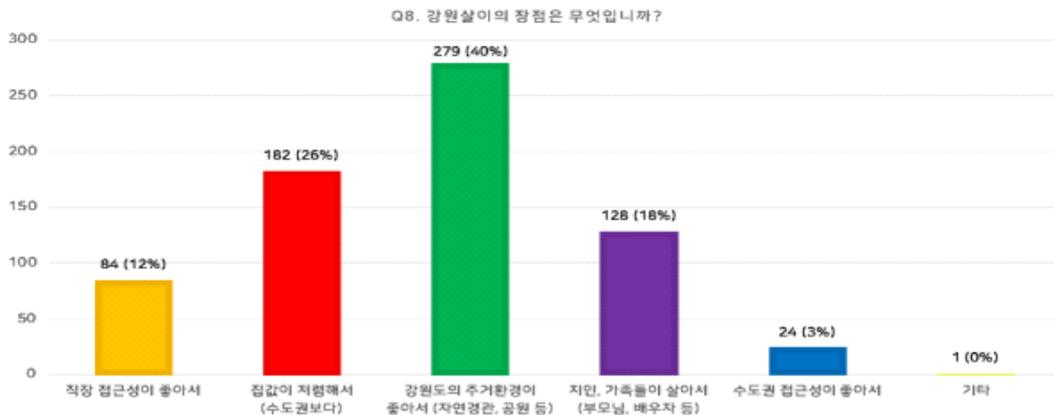
(단위 : 명, %)

강원도에 거주하는 1차적 동기	응답자수	분포(%)
직장 때문에	223	32
가족 때문에	192	28
학업 때문에	99	14
강원도 내에 취업·창업하고 싶어서	124	17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서 계속 지내옴	57	8
기타	3	1

■ 강원살이의 장점으로서는 자연환경 등 주거환경이 좋아서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보다 집값이 저렴해서 좋다는 의견이 26%로 삶의 편리와 주거에 대한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다.

<표4-6> 강원살이의 장점

(단위 : 명, %)



■ 생활환경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한달 평균 생활비 지출금액에 대한 설문에서 50만원 ~ 70만원이 4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70만원 ~ 100만원이 29%로 50만원 ~ 100만원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표4-7> 한 달 평균 생활비 지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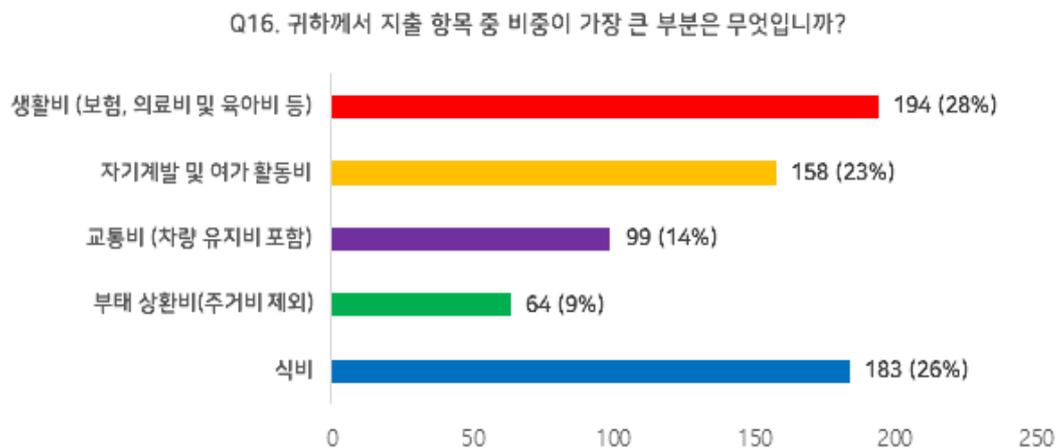
(단위 : 명, %)

가정에서 1인 기준 한 달 평균 생활비	응답자수	분포(%)
30만 원 미만	6	1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115	16
5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	284	41
70만 원 이상~100만 원	203	29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62	9
150만 원 이상	28	4

■ 생활비 지출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보험, 의료 육아 등의 생활비가 28%와 식비 26%, 자기개발 및 여가 활동비가 23%로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들에게 생활의 필수요소들과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에 대한 투자의 가치와 인식에 대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표4-8> 지출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부분

(단위 : 명, %)



■ 설문 응답자 중 구직활동 및 취업 준비 중인 응답자는 34%로 조사되었고, 그 중 경제 활동 중인 응답자 조사의 541명의 인원과 비교 해 보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취·창업자들 중 이직 및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87명인 것으로 조사된다. 구직활동 및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응답자는 직장생활 및 창업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무응답자가 203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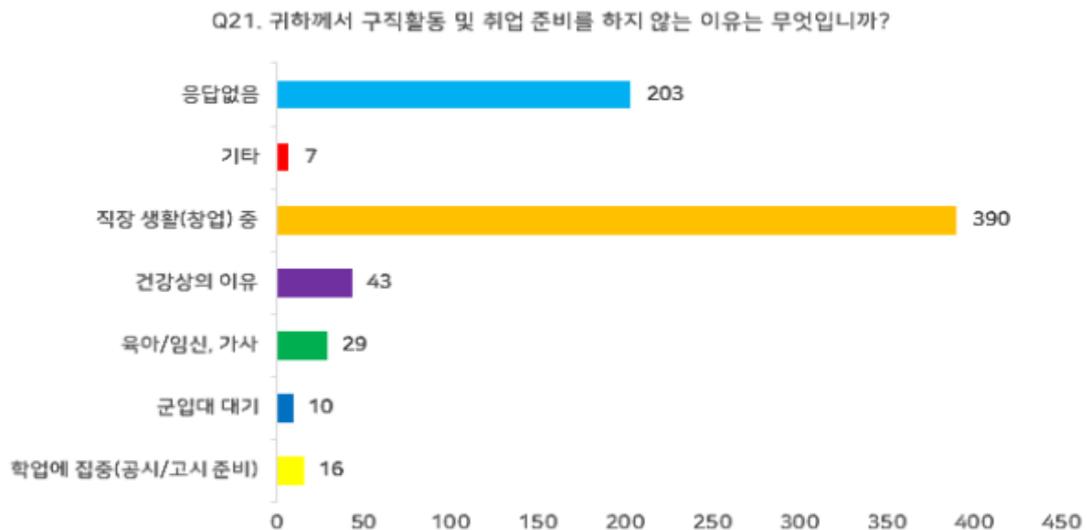
<표4-9> 구직활동 및 취업 준비 유무

(단위 : 명, %)

구직활동 및 취업 준비 유무	응답자수	분포(%)
유	239	34
무	459	66

<표4-10>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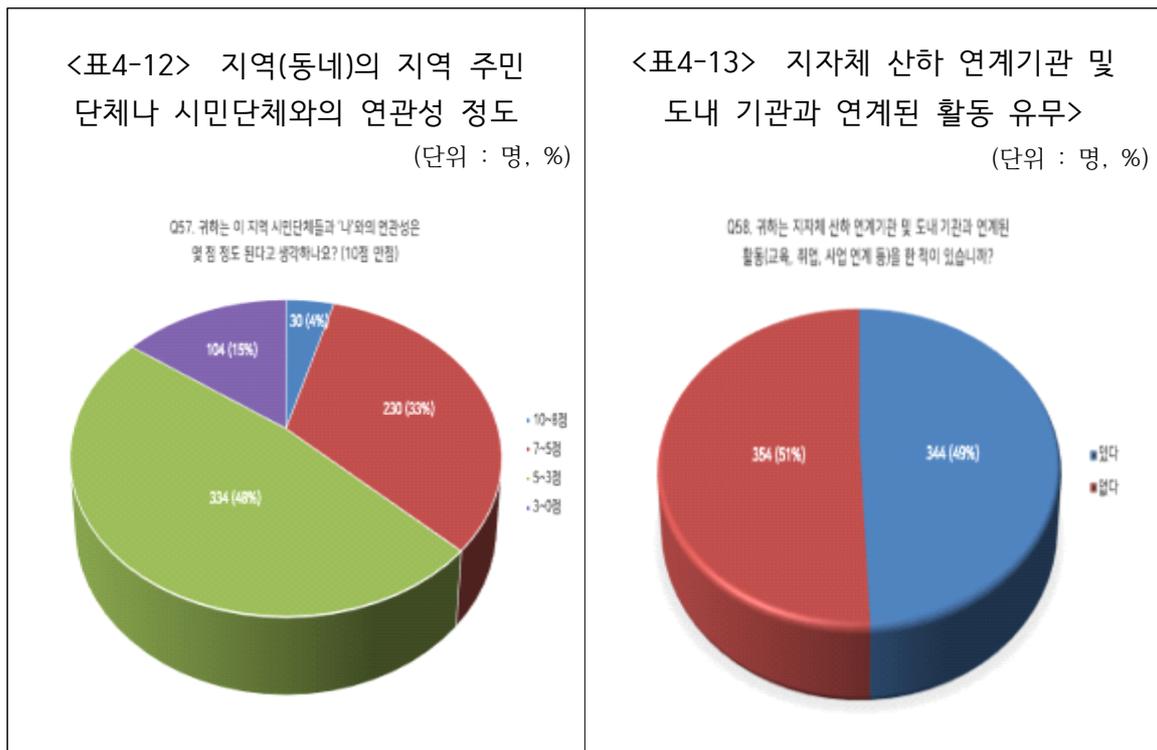


■ 지자체 및 지역의 단체들과의 연계 활동 및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 설문에서 지역 주민단체(주민자치위원회 등) 및 시민단체(마을공동체, 민우회 등)를 3개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402명 58%로 나타났고, 지자체 산하 연계기관 및 도내 기관과 연계된 활동인 교육, 취업, 사업 연계 등으로의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연계기관의 활동에 비해 지역의 시민중심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관심없음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4-11> 지역(동네)의 지역 주민단체나 시민단체 인식 유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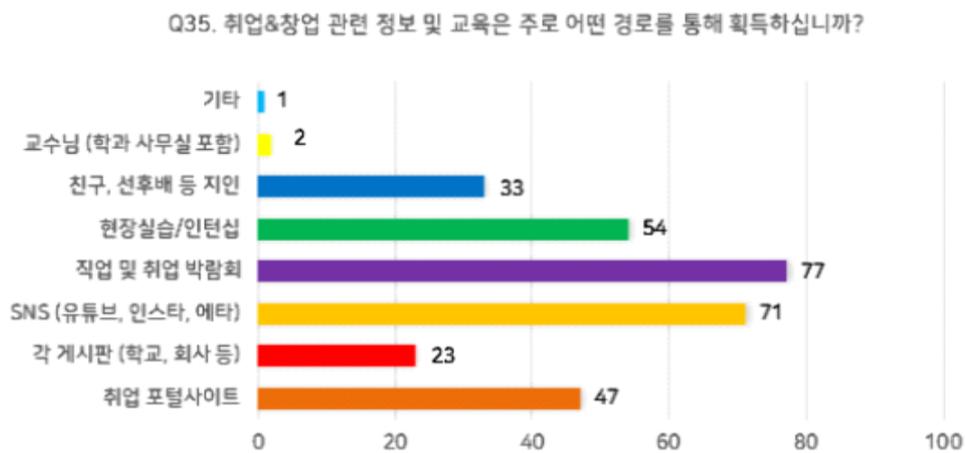
지역(동네)의 지역 주민단체나 시민단체를 3개 이상 알고 있습니까?	응답자수	분포(%)
있다	290	41
없다	402	58
기타	6	1



■ 취·창업 관련 정보 및 교육의 취득 경로로는 직업 및 취업 박람회 등의 공식 채널과 SNS등 온라인과 취업포털사이트와 같은 온라인을 통한 경로 활용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취업을 위한 정책연계 방법으로 오프라인을 방식의 직업 및 취업 박람회 연계와 현장실습 및 인턴십에 대한 활용도가 전체 설문자의 42%로 온라인을 통한 경로 활용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의 38%보다 높았다.

<표4-14> 취·창업 관련 정보 및 교육의 취득 경로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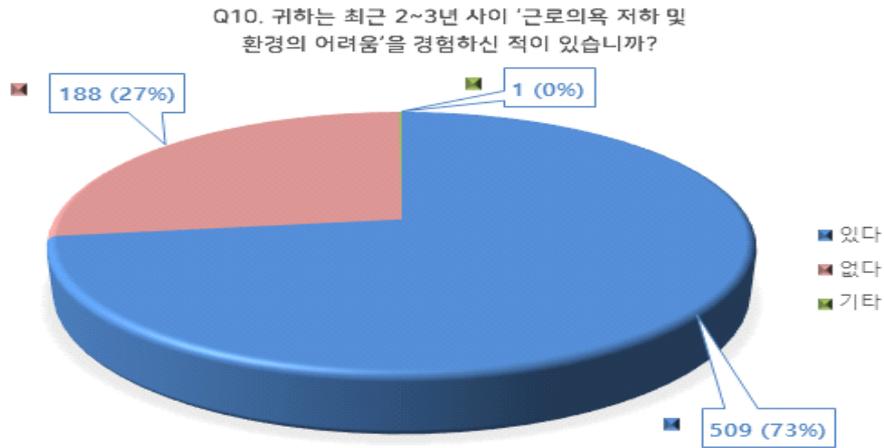
3) 팬데믹 시기 강원살이 현황

팬데믹을 살아가는 강원 청년들의 안부와 근황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팬데믹의 상징처럼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전 세계에서 이슈와 사건, 사고들의 중심에 각자의 삶이 있다는 근본적인 인식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인식해 보는 설문이 되기를 기대하며 진행하였다.

■ 팬데믹 시기에 근로의욕 저하 및 환경의 어려움 경험유무를 묻는 설문에서 73%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15> 팬데믹 시기에 근로의욕 저하 및 환경의 어려움 경험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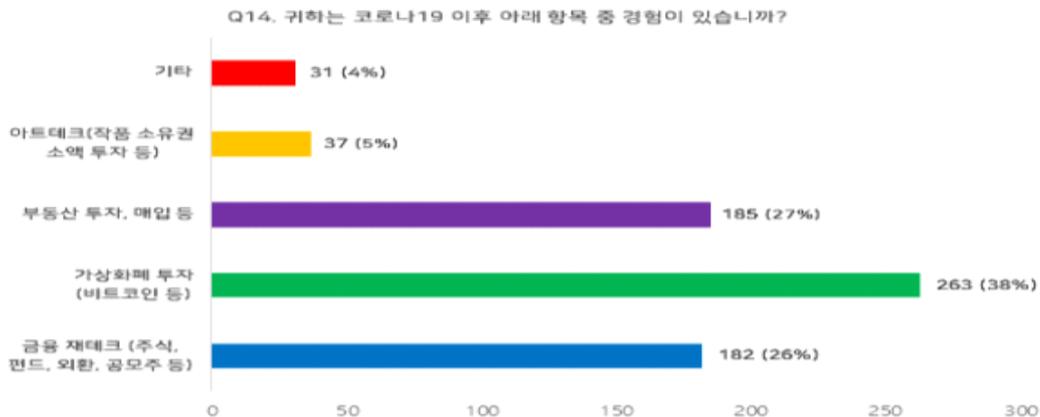
(단위 : 명, %)



■ 팬데믹 시기에 이슈화 된 경제 관련 사회 현상들에 대한 경험의 설문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38%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27%, 금융 재테크가 26%, 아트테크가 5%로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96%의 설문자가 팬데믹 시기의 재테크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16> 코로나시기의 재테크 경향

(단위 : 명)



- 팬데믹 시기의 부채의 유무와 부채의 주된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 60%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부채 중 주택 관련 부채가 32%, 교육 관련 부채가 28%, 사업(창업) 관련 부채가 20%, 생활비 관련이 1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4-17> 팬데믹 시기의 부채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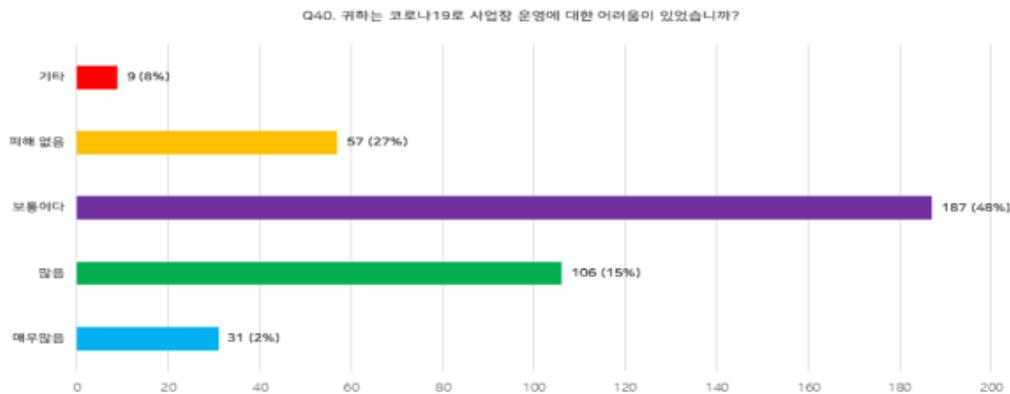
보유한 부채(빚)의 주된 원인	응답자수	분포(%)
생활비 (차량, 주식, 의료 등)	53	13
주택관련 부채 (매입, 보증금, 전세, 월세, 관리비 등)	132	32
교육 관련 부채 (학자금 등 교육 비용)	115	28
사업 (창업) 자금	80	20
결혼 비용 (주거제외)	18	5
기타	10	3

◇ 직장인과 창업자들

- 직장인과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직장인과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가 48%로 가장 많았고, 많다가 17%, 피해없음이 27%로 조사되었다.

<표4-18> 팬데믹 시기의 직장인과 창업자들의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



■ 팬데믹 시기의 창업 및 사업 어려움의 해결 방법에 대한 설문에 개인 자금 조달,대출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 27%와 정부, 전문기관 등의 정부 정책에 기대하고 있는 응답 26%,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22%,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가 19%로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법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9> 코로나19로 인한 창업 및 사업의 어려움 해결 방법

(단위 : 명, %)

코로나19로 인한 창업 및 사업의 어려움 해결 방법	응답자수	분포(%)
개인 자금 조달, 대출 등	107	27
가족, 친구, 친척 등의 도움을 받는다	85	22
정부, 전문기관 등 정부 정책 기대	103	26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75	19
기타	20	6

■ 사업을 경영 및 운영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점으로는 보수 등 근로조건의 입장차이가 37%로 가장 높게 나왔고, 경제 상황 악화가 26%, 경력자 및 전문 기술 근로자 부족 16%, 코로나19로 인한 세대 간 이해관계 차이 9%로 운영의 애로점으로 조사되었다.

<표4-20> 경영 및 운영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점

(단위 : 명, %)

사업을 경영하며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점	응답자수	분포(%)
경력자 및 전문 기술 근로자 부족	62	16
보수 등 근로조건의 입장 차이	146	37
경제 상황 악화	102	26
코로나19로 인한 세대 간 이해관계 차이	34	9
어려움 없음	36	9
기타	10	3

- 직장인과 창업자들 중, 팬데믹 시기의 현직장에 대한 고민과 이직에 대한 고민의 유를 묻는 설문에서 현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는 설문자가 53%로 나타났다. 이직 고민의 이유로 미래에 대한 비전 여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복지 및 근무환경과 안정성, 임금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표4-21> 코로나19로 인한 창업 및 사업의 어려움 해결 방법

(단위 : 명, %)



<표4-22> 이직 고민의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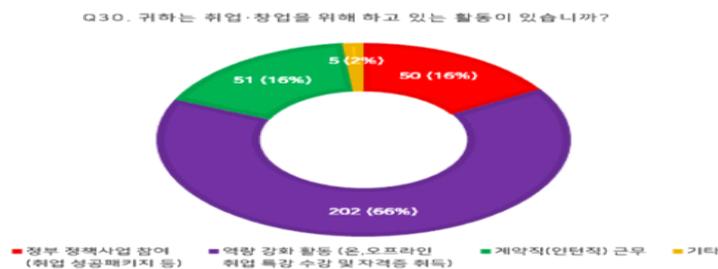
팬데믹 시기의 이직 고민 이유	응답자수	분포(%)
임금	54	14
미래에 대한 비전	134	34
안정적인 직장(정년 근무, 회사 성장 전망, 정규직 여부 등)	74	19
복지 및 근무 환경	88	23
이직 의사 없음	40	10

◇ 구직 or 창업준비자

- 구직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설문자들을 대상들의 취·창업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의 경향 조사결과 66%가 온·오프라인 취업특강 수강 및 자격 취득 등의 역량 강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정책사업 참여와 계약직(인턴) 근무자도 각 16%로 나타났다.

<표4-23> 취·창업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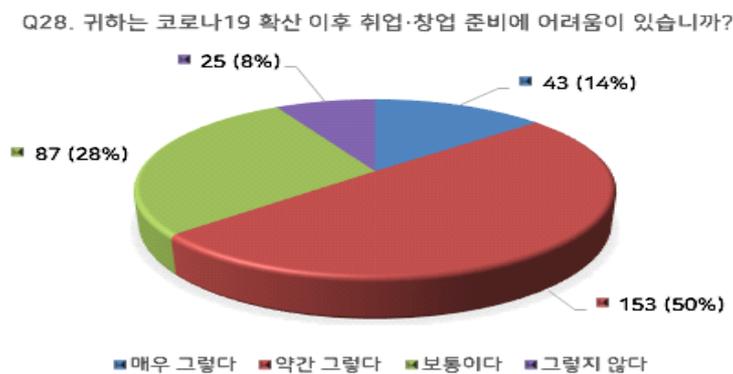
(단위 : 명, %)



■ 팬데믹 시기에 취·창업의 어려움 여부에 대해 64%가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했다. 준비과정의 어려움으로 불안감, 우울감, 자존감 하락 등 심리적 위축가중으로 인한 어려움이 29%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단기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이 24%,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의 기회확보 어려움 22%, 채용 기회 감소로 인한 입사 경쟁 심화 17%, 진로지도 등 멘토링 기회 감소 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4-24> 팬데믹 시기에 취·창업의 어려움 여부

(단위 : 명, %)



<표4-25> 팬데믹 시기에 취·창업의 어려움 현황

(단위 : 명,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창업 준비 과정에서 겪고 있거나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	응답자수	분포(%)
채용 기회 감소로 인한 입사 경쟁 심화	76	17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	102	22
단기 일자리 (아르바이트) 감소로 취업 준비의 경제적 부담 증가	108	24
불안함, 우울감, 자존감 하락 등 심리적 위축 가중	131	29
진로 지도 및 멘토링 등 기회 감소	37	8

4) 의식조사

■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되었고, 그 뒤를 이어 교통 여건과 안정성, 주변 치안, 교육환경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지인들의 거주 여부가 거주지 선택의 영향 요소로 조사되었다.

<표4-26>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주요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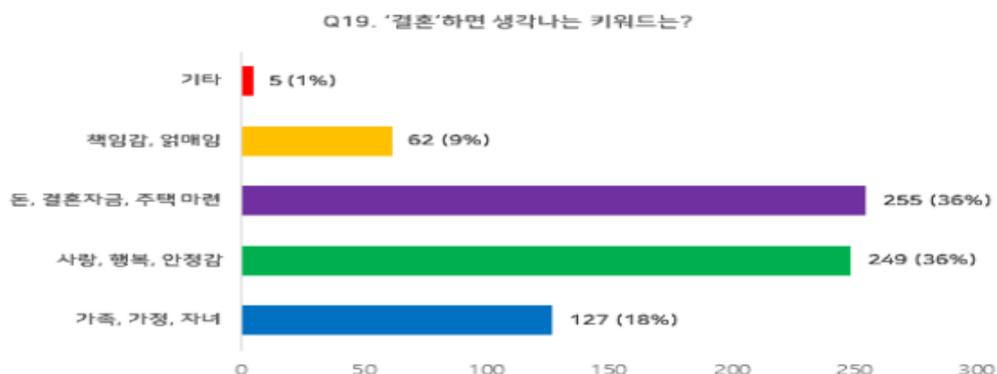
(단위 : 명)



■ 결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돈, 결혼자금, 주택 마련 등의 경제적 관점의 인식 37%와 사랑, 행복, 안정감 등의 정서적인 인식 36%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에 대한 인식이 18%, 책임감, 워라밸 등의 부담 요소로 9%, 기타 의견으로 불편함, 필수가 아닌 선택, 생각 없음 등이 있었다.

<표4-27> 결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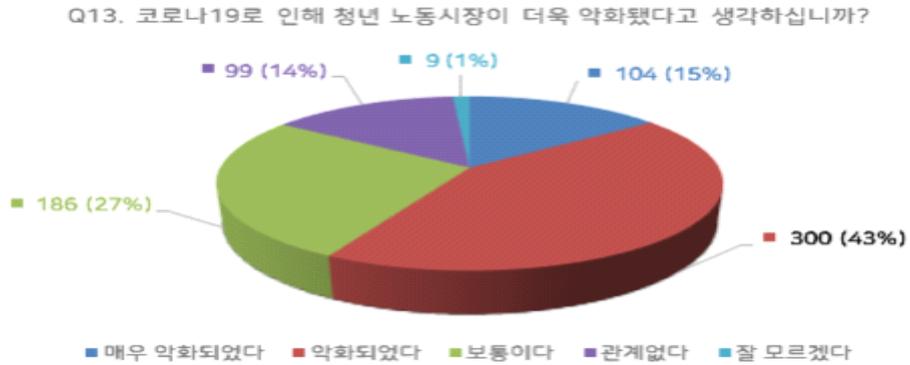
(단위 : 명, %)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는 58%가 악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4-28> 청년 노동시장의 체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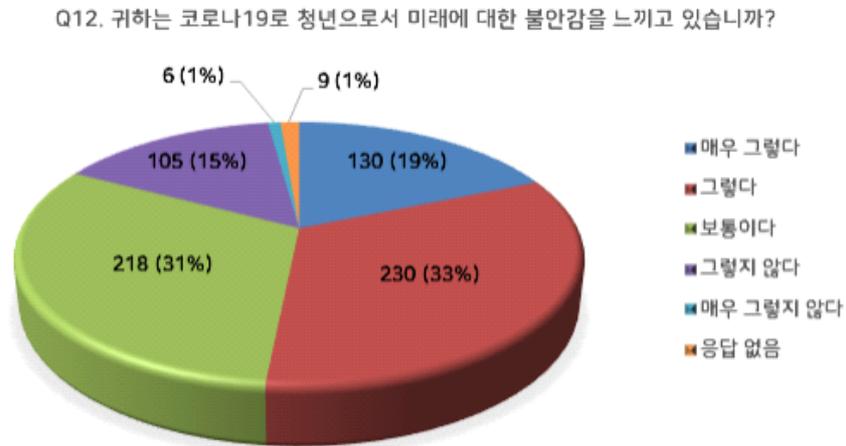
(단위 : 명, %)



- 팬데믹 시기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정도에 대한 설문에는 52%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9>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정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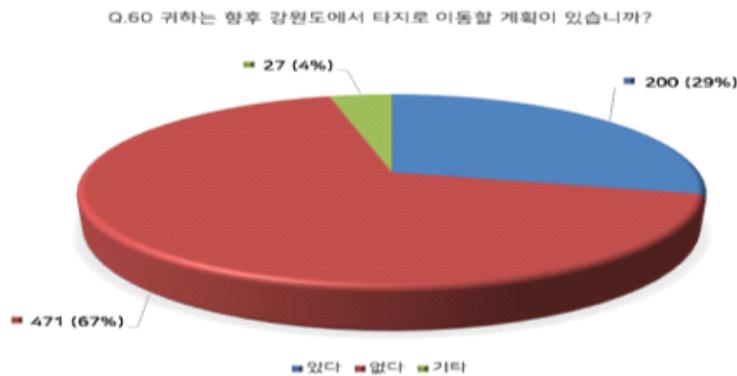


- 향후 타지로의 이동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67%가 '없음'의 의견을 주었고, 기타 의견으로 취업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 여건에 따라 다름, 계획 없다, 5년 이내에 발전이 없다면 이사계획 있음 등이 있었다.

이동 계획이 있는 29%를 제외한 71%의 청년들이 강원도에 정착을 하고자 하는 미래의 잠재 인재가 있다는 것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표4-30>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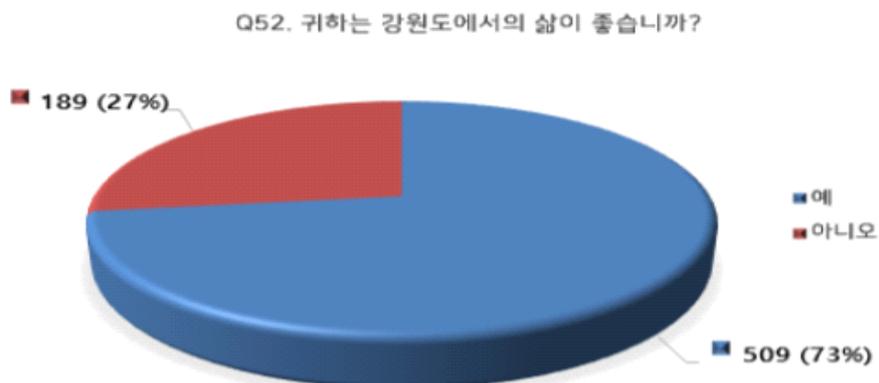
(단위 : 명, %)



- 청년들의 강원살이 생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강원도의 삶에 대한 만족 유무에 72%가 긍정의 답변을, 27%가 부정의 답변을 주어 강원살이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4-31> 강원도의 삶에 대한 만족 유무

(단위 : 명, %)



■ 강원도에 살기 좋은 이유로는 살기 좋은 자연환경이 7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고향이라서, 여유로운 삶의 이유를 들었다. 기타의견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좋은 교통, 수도권보다 낮은 부동산, 사람들이 좋아서, 여행할 곳이 많아서, 높은 워라벨 실현 가능성 등의 의견을 주었다.

<표4-32> 강원도에 살기 좋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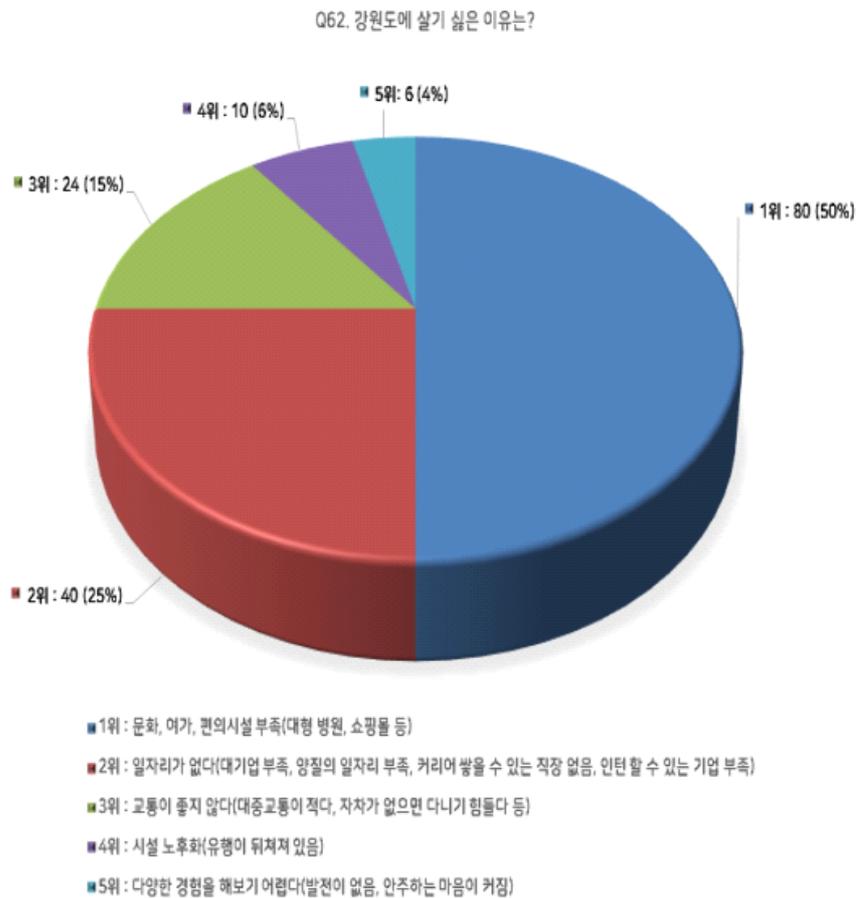
(단위 : 명, %)



■ 강원도에 살기 싫은 이유로는 문화, 여가, 편의시설 부족이 응답자의 50%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의 부족이 25%로 높게 나타났고, 교통 및 편의시설의 불편이 15%의 의견이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 시설의 노후화, 발전 가능성이 없어서, 활기의 부족 등의 의견을 주었다.

<표4-33> 강원도에 살기 싫은 이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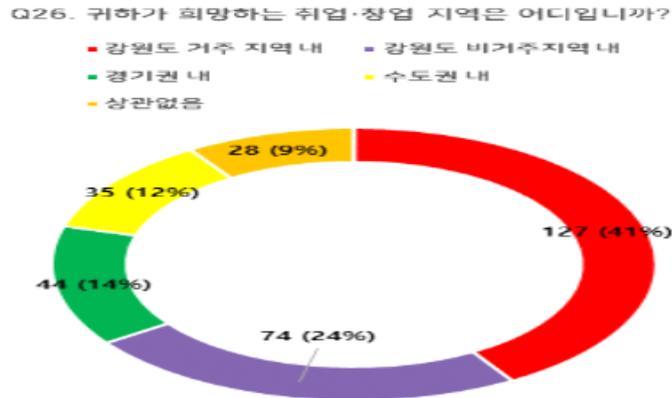


(구직 or 창업준비자)

■ 구직 또는 창업준비자 중 취업 희망 지역으로 강원도 지역 내의 희망자가 65%로 높게 나타나 강원 청년들의 지역살이에 희망을 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표4-34> 취업 및 창업 선택 시 고려하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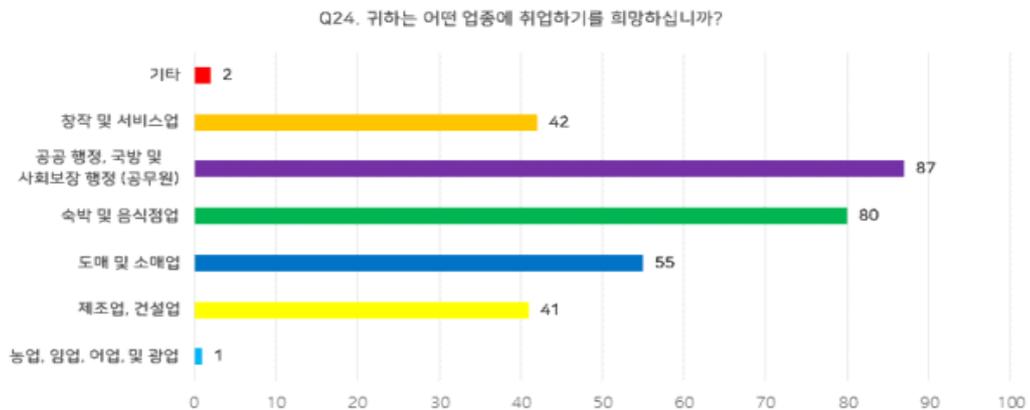
(단위 : 명, %)



■ 구직 또는 창업준비자 중, 취업 희망 직종 1위는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공무원 직종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종이 2위, 도소매업, 창작 및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35> 취업 희망 직종

(단위 : 명)



■ 구직 또는 창업준비자 중, 희망하는 근로 형태로 정규직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프리랜서 25%, 비정규직 17%, 자영업 등 고용주 8% 순으로 조사되었다.

안정적인 정규직의 선호도가 높고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청년들의 인식이 취·창업시 가장 고려하는 고용 안정성, 사회적 안정, 임금수준 직업의 전망 등과의 연관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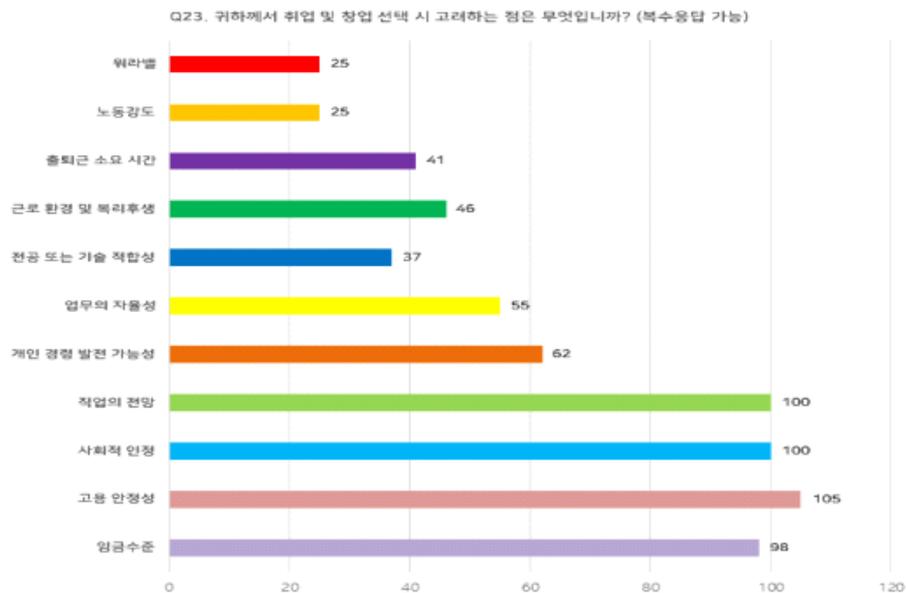
<표4-36> 희망하는 근로 형태

(단위 : 명, %)

귀하께서 희망하는 근로 형태는 무엇입니까?	응답자수	분포(%)
정규직	155	50
비정규직	52	17
프리랜서	77	25
자영업 등 고용주	24	8

<표4-37> 취업 및 창업 선택 시 고려하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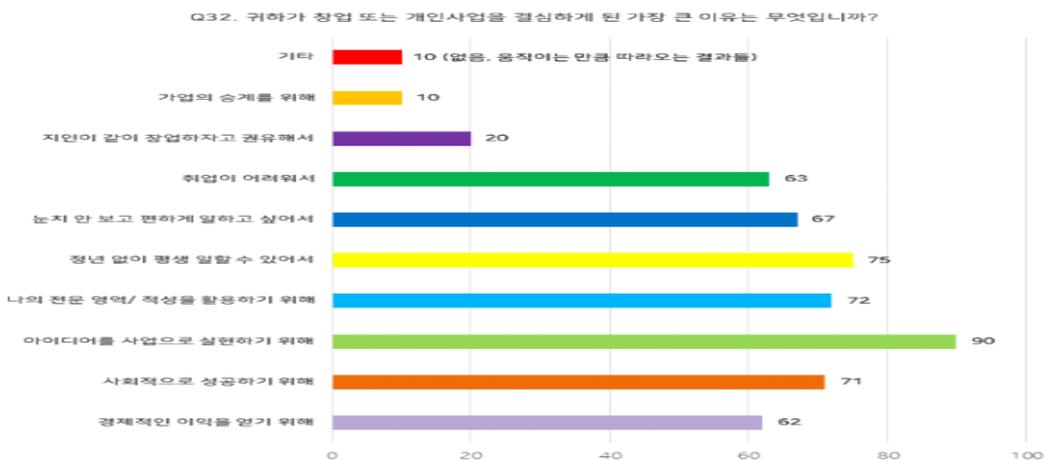
(단위 : 명)



■ 창업 또는 개인사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전문영역 적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등 개인의 성취를 위한 이유에 대한 의견이 33%의 응답이 나왔다. 경제 활동 관련 이유로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등의 이유가 20%, 개인적인 목적과 이유로 눈치 안보고 일하고 싶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가 각각 9%로 다양하고 폭넓은 이유로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표4-38> 창업 또는 개인사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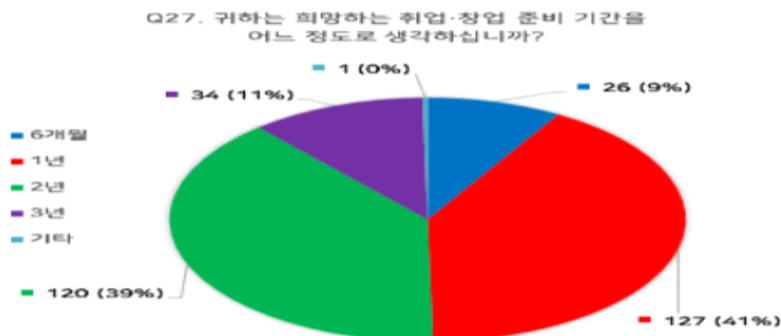
(단위 : 명)



■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적당한 기간을 묻는 질문에 1년이 41%, 2년이 39%로 답했다. 취업과 창업에 대한 준비와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 인식이 높아진 이유와 관련이 있는 지점이다.

<표4-39>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적당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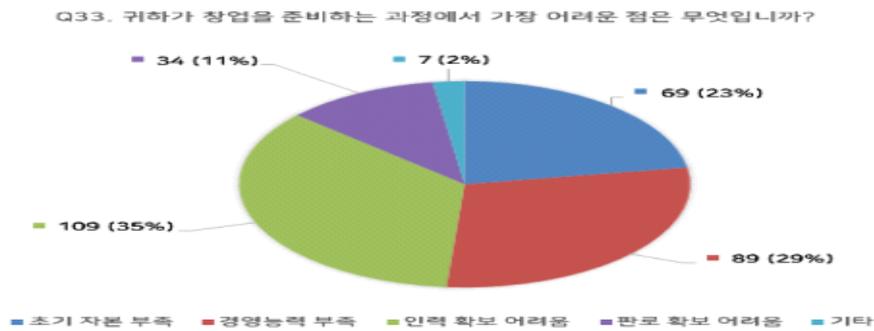
(단위 : 명, %)



■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에서는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35%로 가장 높게 나왔고, 경영능력의 부족이 29%, 초기 자본 부족이 11%로 조사되었다. 전문인력의 양성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는 조사 결과라 보아진다.

<표4-40>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



■ 강원도에서 취업·창업 과정 중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에서 구직 기간의 생계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자리의 부족과 경력의 부족으로 오는 어려움이 그 뒤를 따랐다. 분야별로는 구직 기간의 생계 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27%, 일자리의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29%, 진로와 취업에 대한 준비와 정보 등에 대한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4-41> 취업·창업 과정 중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

취업·창업 과정 중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		응답자수	분포(%)
경제적 문제	구직 기간의 생계 문제	103	27
	취업 준비 비용 마련	77	
일자리 문제	일자리 부족	94	29
	적절한 근로조건의 직장 부재	67	
	취업 희망 산업의 부재	31	
준비와 정보에 대한 부족 문제	진로 선택의 어려움	76	36
	관련 일 경험 부재, 경력 쌓기의 어려움	80	
	취업 정보 부족	51	
	전공, 기술 자격요건 부적합	32	
사회적 관념 문제	외모, 학력, 성별 등의 차별	32	8
정서적 문제	정신적 스트레스	16	
기타		2	

■ 강원도 내에서 취업·창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 청년 대상 공공 일자리 확대가 41%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양한 일자리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 제공이 39%로 나왔다.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경험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취업과 창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 구직 및 창업활동 비용 지원과 취업, 창업을 위한 정부 정책 확대가 각각 10%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다양한 직업군 유치의 필요성 등이 있다.

<표4-42> 강원도 내의 취업·창업에 필요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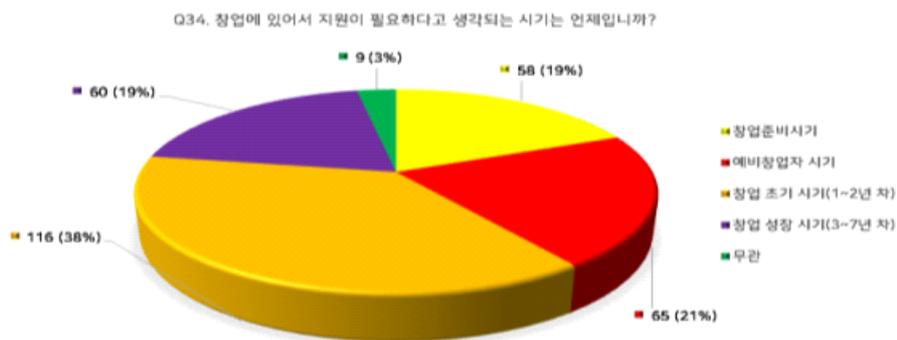
(단위 : 명, %)

지역 내의 취업·창업을 희망한다면 필요한 지원	응답자수	분포(%)
구직 및 창업활동 비용 지원	31	10
다양한 일자리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 제공	119	39
청년 대상 공공 일자리 확대	125	41
취업, 창업을 위한 정부 정책 확대	32	10
기타 (다양한 직업군 유치를 위한 강원도의 발전)	1	

■ 창업시 지원이 필요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창업 초기 시기 (1~2년차)가 3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창업 전인 예비창업시기(1년 이내)가 21%, 창업 준비기가 19%로 조사되었다. 창업 성장 시기(3~7년차)에도 19%로 창업에 대한 시기에 맞는 지원정책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었다.

<표4-43> 창업시 지원이 필요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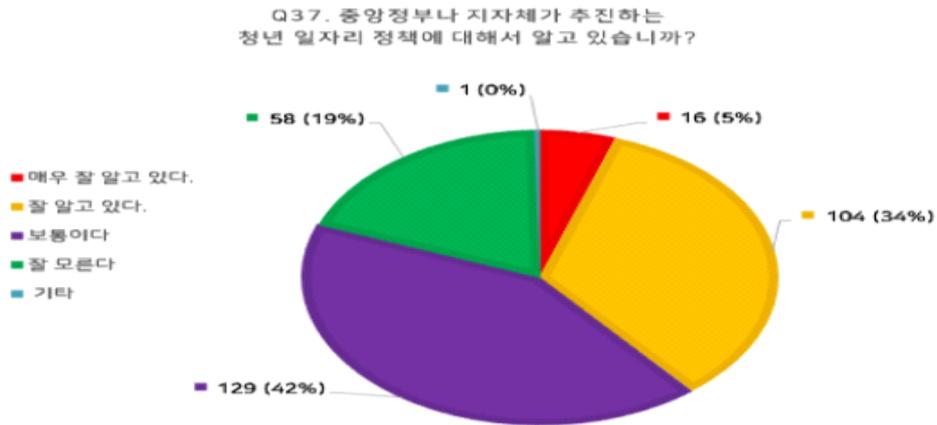
(단위 : 명, %)



-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도의 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가 39%, ‘보통이다’가 42%, ‘잘 모른다’가 19%로 조사 되었다.

<표4-44>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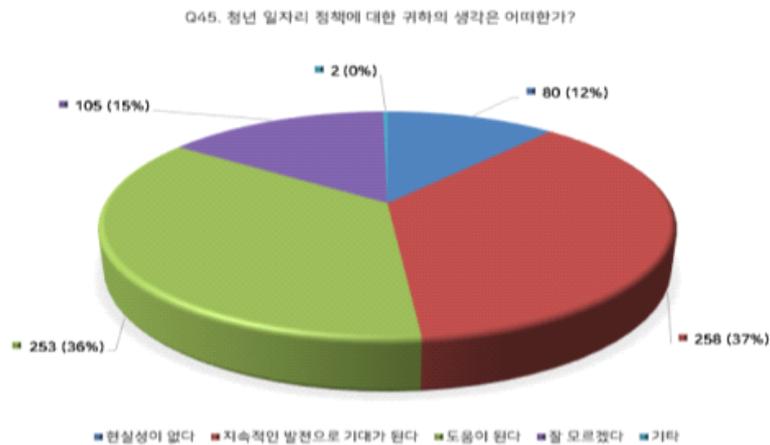
(단위 : 명, %)



-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대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 ‘지속적인 발전으로 기대가 된다’의 의견이 37%, ‘기대가 된다’가 36%로 긍정의 의견이 73%를 차지했다.

<표4-45>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대 정도

(단위 : 명, %)



■ 도내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계 활동 및 협력 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연결 방법에 대한 의견에는 취업 및 일자리 연계 42%와 교육 및 역량강화 활동 연계 3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경제적인 연계점으로 취업 및 일자리 연계와 사업 연계(비즈니스)의 의견이 50%로 사회적 연계점인 봉사나 유대관계의 관계 형성에 대한 의견 19%와 큰 차이를 보였다.

<표4-46> 도내 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계 및 협력 활동의 연결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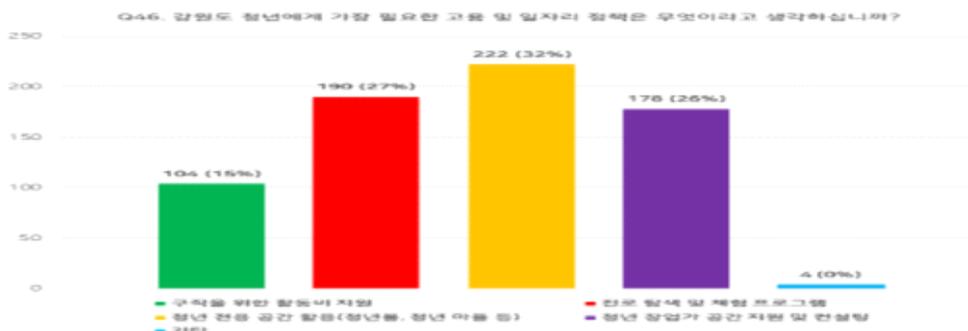
도내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계 활동 및 협력 활동의 연결점	응답자수	분포(%)
사업 연계(비즈니스)	53	8
봉사 연계	84	12
취업 및 일자리 연계	295	42
교육 및 역량 강화 활동 연계	211	30
유대관계 연계	48	7
기타	7	1

5) 슬기로운 강원살이를 위한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방향 (일자리)

■ 강원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해 32%가 청년 전용 공간 활용 (청년몰, 청년 마을 등)이라고 답했고, 진로 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이 27%, 청년 창업가 공간 지원 및 컨설팅이 26%, 구직을 위한 활동비 지원이 15%로 조사되었다.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정책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은 것을 주목 해 볼만하다. 청년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플랫폼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의 커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4-47> 결혼과 출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 강원도의 일자리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전문인력 양성이 26%와 기업투자유치에 대한 정책이 25%로 가장 많았고, 산업단지 조성이 20%,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11%, 창업 컨설팅이 5%, 교통, 인프라 등 환경개선이 2%로 조사되었다. 일자리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문인력의 양성과 안정적인 일자리의 기반조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강원도 청년들의 인식은 강원도의 청년정책의 방향설정에 아주 중요한 핵심사항인 것 같다. 강원도의 삶과 특성이 강원살이를 하는 청년들에게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표4-48> 강원도의 일자리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강원도 일자리 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응답자 수	분포(%)
근로자 권리 보호	77	11
기업 투자 유치	173	25
전문 인력 양성	179	26
산업단지 조성	138	20
중소기업 지원	78	11
창업 컨설팅	34	5
교통, 인프라 등 물류환경 개선	19	2

■ 청년 고용 및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가 4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공공 일자리, 공기업 연계 정책이 29%, 취업·창업 교육 등 역량 강화지원 16%와 일자리 확대 13%가 청년 고용 및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표4-49> 청년 고용 및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단위 : 명, %)

청년 고용 및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응답자 수	분포(%)
일자리 확대	94	13
공공 일자리, 공기업 연계 정책	202	29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295	42
취업·창업 교육 등 역량 강화지원	105	16
기타	2	0

■ 소상공인 및 창업지원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창업자 세금 감면 혜택이 29%로 가장 높은 의견으로 나왔고, 창업 관련 프로그램 교육/이수가 24%, 창업 운용 비용 지원이 23%, 창업에 관련 실질적인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이 16%,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8%로 조사 되었다. 실질적인 금전적인 지원정책으로 창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면,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창업 관련 프로그램 교육/이수와 창업에 관련 실질적인 교육 및 역량 강화지원에 대한 정책의 필요가 40%로 높은 필요 정책으로 조사 되었다.

<표4-50> 소상공인 및 창업지원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소상공인 및 창업 지원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책	응답자수	분포(%)
창업에 관련 실질적인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63	16
창업자 세금 감면 혜택	114	29
창업 운용 비용 지원	89	23
창업 관련 프로그램 교육/이수	94	24
지속적인 지원 정책	29	8
기타	1	0

생활문화 부문)

■ 슬기로운 강원살이를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에 대한 설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43%로 가장 우선 순위로 꼽혔고, 문화/여가의 질 향상이 26%로 높은 순위로 꼽았다. 다음 순위로 경제적인 부분의 주택문제 11%와 부채 및 재정적인 압박감이 5%로 조사되었다.

<표4-51> 안정적인 강원살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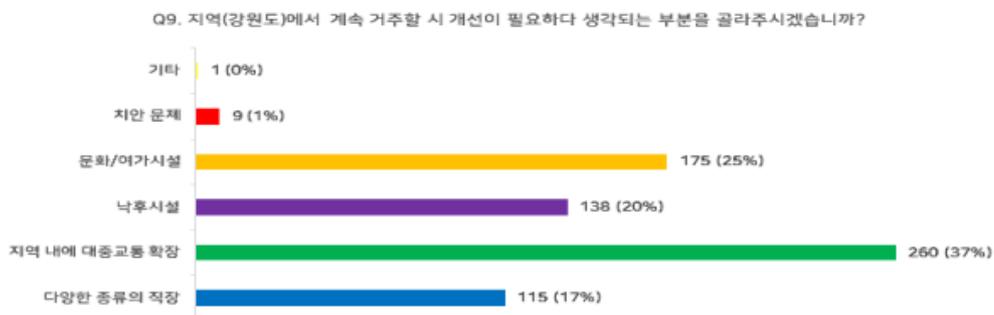
(단위 : 명, %)

안정적인 강원살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	응답자수	분포(%)
주택	74	11
결혼 및 가정 형성	105	15
안정적인 일자리	301	43
문화/여가의 질 향상	178	26
부채 및 재정적인 압박감 해소	40	5

■ 지속적인 강원살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환경적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 대중교통 확장이 37%로 가장 많았고, 문화 여가 시설의 필요에 대한 의견이 25%, 낙후시설의 개선이 20%, 다양한 종류의 직업이 17%로 조사되었다.교통 편의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이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였다.

<표4-52> 지속적인 강원살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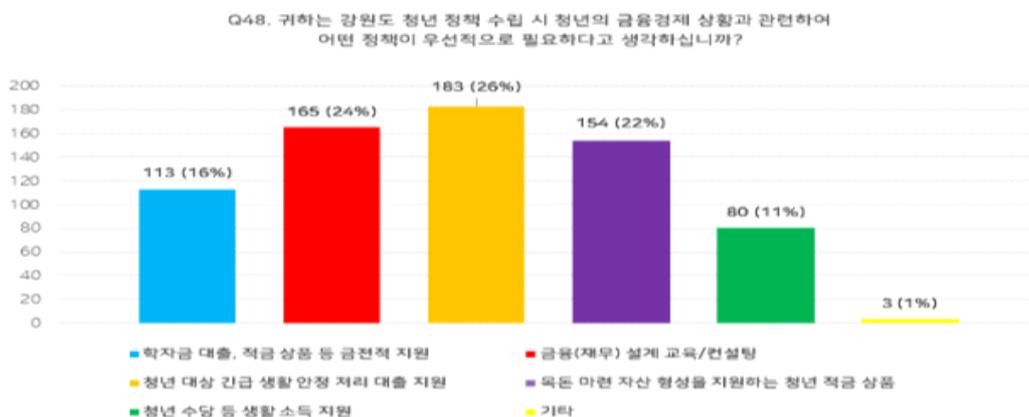
(단위 : 명, %)



■ 강원도 청년 정책 수립 시 청년의 금융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설문에서 1위로 청년 대상 긴급생활안정 저리대출 지원 26%, 2위로 금융(재무) 설계 교육/컨설팅 24%, 3위로 목돈 마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적금 상품 22%, 4위로 학자금 대출 및 적금 상품 등 금전적 지원 16%, 5위로 청년 수당 등 생활 소득 지원 11%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주거지 지원, 빠른 컨설팅/정책사업 말고 청년이 부딪히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있었다.

<표4-53> 청년의 금융경제 관련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출 등의 주거비용 지원이 31%로 가장 많았고, 주거 관련 법률 지원 정책 확대 (전문가 지원 서비스, 부동산 법률, 임대차 보호법 등)가 26%, 동행 서비스의 확대가 22%,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 주택 공급 확대가 21%로 조사되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하는 주거 관련 법률 지원 정책 확대 (전문가 지원 서비스, 부동산 법률, 임대차 보호법 등)와 동행 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필요 의견이 전체의 48%로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주택이나 주거, 입지 등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들에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4-54>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 정책

(단위 : 명, %)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	응답자 수	분포(%)
주거 관련 법률 지원 정책 확대 (전문가 지원 서비스 <부동산 법률, 임대차 보호법 등>)	180	26
동행 서비스 (함께 집을 보면서 조언)	155	22
대출 (주거비용 지원)	216	31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 주택 공급 확대	146	21
기타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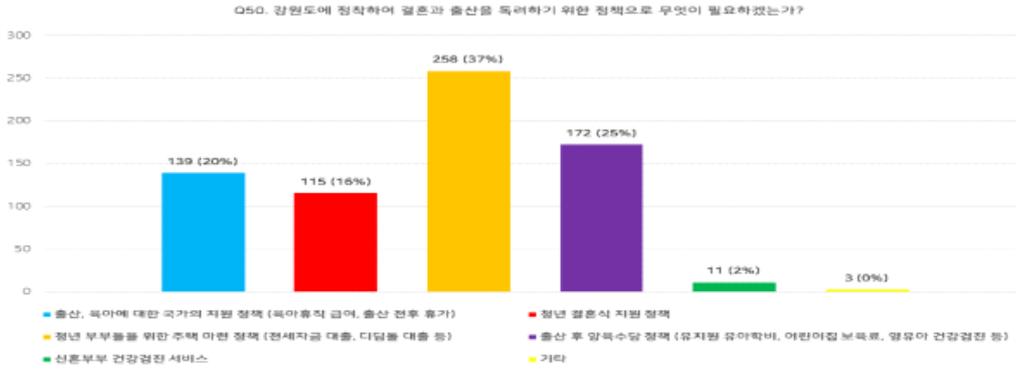
■ 결혼과 출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청년 부부들을 위한 주택 마련 정책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등)이 37%로 가장 많았고, 출산 후 양육수당 정책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25%, 출산, 육아를 위한 국가의 지원 정책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이 23%, 청년 결혼식 지원 정책이 20%, 신혼부부 건강검진 서비스 2%로 조사되었다.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된 결과도 주목 할만 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에 대한 의견인 출산 후 양육수당 정책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영유아 건강검진 등)과 출산, 육아를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의 필요로 45%로 나온 것에 주목해 볼 하다.

단기적인 장려가 아닌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의 준비와 실행이 비혼과 저출산의 현실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표4-55> 결혼과 출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 정도를 ‘높다’가 46%, ‘보통이다’가 46%, ‘낮다’가 7%로 조사되었다.

<표4-56>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 정도

(단위 : 명, %)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치	응답자수	분포(%)
매우 높다	76	11
높다	244	35
보통이다	320	46
낮다	50	7
매우 낮다	8	1

■ 청년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한 의견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기반시설 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 36%로 가장 높았고, 청년정착의 기반 사항인 일자리의 확대가 25%,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인재 창출을 위한 교육 관련 정책 추진이 23%, 청년들의 커뮤니티와 플랫폼 역할을 할 청년 전용 활동공간 운영 및 확보 (ex 청년 마을, 청년몰)가 1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청년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개정으로 가장 변화되었으면 하는 점이 일자리나 역량강화 활동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기반시설 수 확대를 통한 강원도의 변화라는 것에 주목해 보았으면 한다. 청년들의 강원살이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이다.

<표4-57> 청년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단위 : 명, %)

청년으로서 강원도특별자치도 개정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응답자수	분포(%)
청년 일자리 확대 개선	177	25
지역 인재 창출을 위한 교육 관련 정책 추진	160	2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기반시설 수 확대	249	36
청년 전용 활동공간 운영 및 확보 (ex 청년 마을, 청년 물)	94	13
대중교통 확대정책	18	3

제2절 설문조사에 대한 전문가 자문

1. 팬데믹 시대의 강원 청년살이

자문 :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주센터장 김원효

1) 설문지에 기반하여 한마디..

○ 강원도 청년들은 의지가 약하다?

팬데믹 이후 더 심해진 듯하다.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도 팬데믹이라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여 자신만의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는 강원 청년의 취업과 창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생각을 실현으로 옮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취업 생각, 창업 생각을 하긴 하나 특별히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 좋은 일자리, 성공하는 창업이란 애초에 없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창업에 관심은 있으나 할 마음은 없다?

창업 성공에 대해 부러움과 시기심 등이 함께 작동하여 나도 창업해서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많이 한다. 반면에 실제 창업 할 것인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니다. 모든 면에 관심은 많으나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부족하다.

○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

실력과 능력, 자금력, 경력 등에 있어 부족한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등 철저한 분석과 연구, 전략 등이 없음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

○ 생각하는 면에 있어 의외로 다양하게 또는 특별하게 뭔가 없다?

창업 아이템, 직업 선택, 마케팅 방법 등 청년으로서의 생각이 반영된 뭔가가 없이 기성세대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

2) 강원 청년살이가 성공하려면..

○ 은둔형 청년이 아닌 활동형 청년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의 제도하에서도 웬만한 지원제도는 있다. 이를 찾아보고 활용 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형 청년이 되어야 한다.

○ 실패해도 좋다. 해 보자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청년은 드물다. 잘할 수 있다고 한 직장에서도 적응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 보자, 해 보고 결정하자.

○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창업자금이 없어서? 취업하려니 거리가 멀어서? 등등의 이유는 이유가 안 된다. 창업자금은 최소 몇 십 만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많다.

○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부모 밑에서 의지하며 살 수는 없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있을 때가 독립 할 수 있는 기회이다.

○ 미래는 청년의 것이다.

청년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2. 청년이 함께하는 강원살이

자문 : 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이송일

1) 강원살이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 그리고 안전한 창업을 희망한다.

- 4차산업 혁명시대에 안정적인 일자리는 없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취업이든 창업이든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원하는 것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쟁취해야 한다.

- 청년들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스스로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교육을 받는다고 역량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다. 지식이라면 네이버로 검색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끌어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즉,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안다는 것으로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실무를 쌓아야 한다.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야 깨달음을 얻고 실행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현장으로 나가라.

○ 지역자원을 활용하라

- 청년들은 항상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재무자원, 인적자원, 지식재산권 등등.

-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지역자원이다. 지역자원이라 함은 강원도의 가장 강력한 지역자원은 청정 동해바다, 설악산을 포함한 명산 등일 것이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 지역자원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라. 찾아보면 여러분에게 든든한 자원이 될 것들이 무궁

무진하다. 찾지 않았고, 인지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항상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찾지 않았을 뿐이다.

2) 강원살이를 위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문화입니다.

-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과 시설이 아니라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 즉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촌에 가보면 아무도 활용하지 않는 체육시설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발 정책을 만들 때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 교육이 아니라 커뮤니티 구축에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교육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습득한 지식의 수명은 짧습니다.

-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나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온라인과 비대면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많은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 교육은 교수자가 교육생에게 지식을 전달하지만 커뮤니티는 상호 학습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은 필연적으로 수동적이지만 커뮤니티는 능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강원살이
기반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제5장 안정적인 강원살이 기반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제1절 왜 안정적인 강원살이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1. 의식을 변화시키는 삶의 방식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화를 가져왔다. 삶의 기준과 역할이 달라졌고, 생활 패턴과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팬데믹 :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확산되는 현상*

코로나19로 야기 된 팬데믹 시대! 연구를 진행하며 팬데믹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결론은 먼저라는 답은 나올 수가 없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문화, 사회, 경제 모든 것을 아울러 함께 굴러가며 삶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고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만들어 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대면으로 인한 일상의 소멸. 팬데믹 이전에도 전화가 안부를 대신하고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은 진행되고 있었다. 팬데믹을 그 흐름을 빠르게 가속화 시켰고 삶의 전면에 적용되었다. 방역조치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으로부터의 방역 역할과 삶의 방향과 진행에 대한 방어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었다.

대면의 축소와 비대면의 확장으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적 교류의 역할에 자유롭게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선택의 방어기제가 생겼다. 덕분에 워라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

이러한 사고에서의 관계 형성으로 ‘느슨한 연대’라는 키워드가 이슈가 되었고, 잘 모르는 타인이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개념의 ‘낯선 사람 효과’가 라는 사회 현상도 나타났다. 과거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정보와 조언들이 취업과 창업의 길라잡이가 되고 기준이 되었다면, 설문 결과에도 나온 것처럼, 기관이나 온라인 정보를 통한 방법으로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받고 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경험과 정보와 관점이 비슷해서 놓치기 쉬운 주관적인 입장들을 낮선 사람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짚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을 바꾸려고 할 때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얻는 편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한다. 코로나시기에 다채로워진 온라인 공간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는 풍경 중 하나이다. 온라인 공간의 확대 됨 삶의 방식으로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 온 대한민국은 고립과 단절로 인한 우울감과 답답함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삶에 대한 의식변화에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다.

비대면과 대면의 조화는 지금의 팬데믹 시기에 더욱 절실하고 필요하다. 필요에 의한 비대면과 인간성의 회복과 정서의 회복을 위한 대면의 적절한 교차와 순환이 삶의 변화와 일상에서의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것이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과 삶의 방식을 새롭게 세월 갈 우리 의식의 변화에 함께할 기본자세 이지 않을까.

2. 잘 살고 싶으니까..

비대면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열린 것이 아닌 것처럼 팬데믹 시기의 변화와 어려움의 원인을 코로나19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강원의 청년들은 경제적인 불안정과 사회적인 단절과 혼란이 오는 불안감, 문화적인 향유와 여유를 찾기 어려워진 이 팬데믹 시기에도 사람들은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할 이유와 가치들로 함께 해 나가고자 하고 있었다.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니라, 외면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기를 강원의 청년들은 외면하지 않고 현실에 맞춰가며 대면하고 있었다.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직업에 대한 신중한 선택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쟁력에 대한 필요와 준비 과정을 선호하고, 더 나은 환경과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키워가며 잘 살고 싶은 청년들이 강원도에도 있다.

제2절 팬데믹을 이기는 강원살이 기반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1. 안정적인 강원살이를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

1) 청년(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경제(생산) 활동을 위해 방안을 모색한다.

강원지역 기반의 경제(생산)활동 증가를 위해 수도권 제조업의 특징인 교통과 상권, 편의시설들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는 점을 벤치마킹하여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함으로써 강원도의 탈제조업현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 적극적인 방안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생산성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어야 한다.

2)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및 청년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이 대상자들이 처한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한다.

팬데믹의 영향이던 기존의 문제이던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생활환경은 변화했고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졌다. 오늘날 청년인구 이탈 문제는 단순히 실업률 또는 출산률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환경'이라는 새로운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

생활환경은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각자의 환경에 편차가 있는데 지방의 생활환경이 전체적으로 낙후되고 정체되어진다면 청년들은 지방살이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것이며 이는 탈지방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그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데 이는 정부와 주체자인 청년이 함께 소통하며 해결해 가야 할 문제이다.

3)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지원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자세와 움직임이 필요하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장기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상황을 수치로 환산하기는 어려운 지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과 실태에 대해 공신력 있는 소수의 통계나 발표에 의한 무조건적인 지원금과 일시적 지원방안보다는 지역사회의 상황과 현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들여다보는 상황파악과 분석을 통한 지원과 정책의 반영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4) 지역사회, 지자체, 지역 내 단체 (예. 주민자치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 지자체 산하 정책 연계기관(농어촌기술센터 등), 도내기관(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일자리재단, 소상공인지원원, 창업보육센터 등)과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방안 마련으로 청년과 청년 소상공인들의 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연계 및 대안을 제안한다.

각 기관별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연속적이고 생산성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계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점이 부족한 것에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해진 정책 상 어쩔 수 없는 입장이겠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해 아쉬운 경험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역량강화를 통해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시도와 경험들을 쌓아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성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강원도형 인적자원 발굴과 인재양성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기관 및 단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2.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정착

1)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반영해야 하고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하며 청년들의 환경개선과 향후 대책 마련이 가능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정책안이 실행되어야 한다.

경직된 정책과 형식에 매인 행정이 아닌,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환경의 개선과 생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지자체와 시민들, 현장의 소리와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제시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탄력 있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시대에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열린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환경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방식이 있기에 이러한 삶을 펼칠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경험과 기회의 제공과 움직임이 동시에 필요하다. 필요한 환경 개선과 대책이 마련되어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삶에 반영을 시킬 대상이 있어야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2) 강원도의 지역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살고 싶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2022년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기반이나 자원이 부족하거나 낙후가 되어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거나 도태되는 시기는 아니다. 미디어를 통한 정보와 다양한 경험 루트를 접할 수 있고, 편해진 교통과 접근성 좋은 기반시설들이 주변에 계속 개선되고 있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삶의 주체가 되고,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동시에 있어지는 우리이다. 강원살이에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만들어가느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의식과 관심에 좌우된다.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 자연적 특성들 그리고 각 시 군의 고유 특성들을 적절히 조화시켜 지역형 콘텐츠를 창조하거나 발굴하고 이를 육성해야 할 필요와 책임이 청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있다.

무조건적인 선진사례 답습이 아닌 강원살이에 맞는 색과 질감, 재료로 강원살

이를 그려 갈 수 있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들을 포함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원형 청년살이의 사례는 지역민으로서의 청년들의 기준과 특성을 반영하고 청년들의 역할수행과 권리의 향유를 위한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강원도형 청년지원 방향
및 청년 정책 제안

제6장 강원도형 청년 지원방향 및 청년 정책 제안

최근 5년 동안에 전국 지방에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역살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바로 알고, 삶의 터전으로 청년들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해 보는 프로젝트였다. 초기에 청년 한달 살기,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는 지치고 힘든 도시 생활과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힐링 스팟으로 이슈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의 청년정착 관련 정책에 좋은 사례가 되었고, 각 지방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과 우선순위가 주어졌고 정책에서 이 과정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 역시 선진사례를 답습하고 따라하는 지원금 사업으로 목적과 기준이 맞춰져 버리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대상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주민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사후에 끼워 맞춰지는 지역살이는 또 다른 한계와 오류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강원살이에 필요로 하는 강원도의 특성, 더 나아가서는 각 시군별 상황과 특성이 반영된 정책의 시행과 적용이 절실하다.

팬데믹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을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강원도의 청년들은 무조건적인 탈강원을 꿈꾸기보다는 안정된 생활기반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슬기로운 강원살이에 대한 필요와 바램들을 가지고 있었다.

각자의 삶의 가치와 안정된 생활기반의 마련을 위한 청년들의 노력과 움직임이 정책과 현실에서 이루는 접점들의 면적이 넓어질 수 있는 강원도가 될 수 있는 목소리들이 모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팬데믹 시기를 살아가는 안정적이고 슬기로운 강원살이에 대한 청년들의 설문 내용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강원살이 기반마련을 통한 지역정착을 위한 방향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강원살이의 필요한 방향을 제안해 본다.

1절 안정적인 강원살이 기반마련을 통한 지역정착

1. 일자리

(1) 대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최근 지방의 대기업 유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다. 전국 건설 근로자들의 ‘성지’로 통하고 있는 삼성전자 평택공장 경기도 평택시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데 취업자가 많은 경기도 화성이 있다.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고용 증가로 이어져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대기업과 반도체라는 타이틀을 단 안정적이고, 고수익의 일자리다 보니, 일 자리를 찾아 떠돌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이 되어 안정적인 투자와 인구 증가라는 두 가지 효과로 기업인과 상인, 지역민들의 지역살이의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다. 대기업의 거래업체들이 추가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인구 유입 외에도 많을 것이다.

강원도 역시 대기업의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의 노력과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강원살이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설문에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이유로 ‘직장과 가족’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 필요와 이유들을 지키고 이루어 갈 준비와 새로운 접근의 사고가 정책을 만드는 행정과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에게 필요하다.

기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정책의 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1) 대기업 유치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교육 정책의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인재의 발굴과 역량강화로 ‘지역’의 청년들의 강원살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대기업 유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개선과 협력 구조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관별, 지역별, 주민별, 단체별로 각자의 역할 수행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활동과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유대감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2) 지리적 위치와 교통의 편의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뚜렷한 산업이 없어 배드타운으로 불리고 있는 고양시가 있다.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고양시는 대부분의 지역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고 용수개발도 부족해 제조업이 발달도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고양시가 최근 거주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취업자 수는 55만5000명이었지만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41만8000명에 그쳤다. 최소 13만7000명은 고양시 바깥에서 근무한다는 의미다. 그 이유는 편리한 교통이다. 경의선·서울교외선 철도와 함께 서울 도심과 이어지는 수도권 전철 3호선도 개통되었다. 한강 북안을 따라 놓인 자유로·강변로와 중북부를 가로지르는 1번 국도 및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39번 국도를 중심으로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서울의 시내버스도 운행된다.

강원도는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이 많고, 고속전철과 도로의 개통으로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졌다. 군사지역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약도 없고, 관광 등 다양한 지역적 자원이 풍부하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원주시의 경우 기업도시에 서울·경기권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고, 혁신도시 유치로 공기업들의 인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과의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이 좋다 보니, 소비나 생활은 서울·경기에서 이루어지고, 직장만 지역에서만 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이 좋아져서의 장점이 뭔가의 허점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이러한 특화지역이 조성된 후에도 이어서 진행될 강원도형 지역살이를 위한 정책의 마련과 대안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

1) 유입된 인구의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민들에게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소비를 촉진시키고 강원 살이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적인 정책과 공기업과 민간이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으로 스스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리적 위치와 교통의 편의를 활용한 산업의 유치를 기반으로 연계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취업과 창업의 장려정책이 필요하다. 환경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연계할 온·오프라인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3) 인턴제에 대한 정책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자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는 과거나 현재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사의 필요에 인한 인턴제의 시행이 진행되고 있고, 정책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 인턴제가 책임감이 빠진 체험이나 실습의 개념으로 전략 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인턴제나 계약직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여 수용하고 정책으로 세우는 과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현실에서의 경험과 시행착오가 정책에 반영되어 지역에 맞는 방식과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국고의 손실로 묻혀 지겠지만, 청년은 삶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잘 살아보고자 시행된 정책의 실패나 허점이 강원살이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짐을 싸게 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될 때의 안타까움은 더 할 수 없이 크다.

2. 교육

(1) 일자리 창출의 전후로 연계 할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기술 습득의 교육 과정도 필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역량강화와 전문가 양성의 과정이 체계적인 정책으로 마련되어 교육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2)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통해 공기업 및 대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예산과 정책에 청년들을 맞추는 것이 아닌 청년이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는 교육 정책의 정책이 필요하다.

(3) 취·창업 관련 정보와 교육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활용과 신뢰도는 높다. 그렇다고 오프라인 방식의 필요와 효과가 없어지거나 줄지는 않는다. 온라인 시스템과 오프라인 시스템과 환류를 통한 연계성 있고 지속성 있는 취업과 창업의 경로를 정책화한 '강원살이 케어'정책을 제안한다. 정보취득에서 교육과 역량강화를 거쳐 취업과 창업을 하고, 이후의 운영과 전문성 획득을 통한 기반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2절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정착

1. 주거

설문에서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86%가 20년 이내의 강원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중 59%가 10년 이내의 강원살이를 하고 있었다. 강원도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환경 중 주거에 대한 고민과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결론적으로 살 집이 없으면 떠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부담을 줄여주고 완화시켜 주어 벼랑으로 몰리지 않게는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팬데믹 시기에 부동산의 상승과 투기 열풍은 지역 청년들의 또 다른 한숨거리가 되었다. 지역민들의 살 집은 부족해지고, 부담은 커졌지만, 투기와 투자로 인한 집들은 넘쳐난다. 이런 주택시장의 변화로 청년들의 부채는 커졌고 의욕은 더 떨어지게 되어 코로나 우울감에 동참하게 되었다.

(1) 청년의 주택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역민과 지역 청년들의 기본 생존을 보호해 줄 주거에 대한 강원도형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외부의 투기와 사행을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의 규제와 지역민을 위한 보호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이 기반의 마련이 꼭 필요하다.

부동산에 대한 경험의 부재와 미숙으로 가열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영끌 투자로 빚더미에 앉은 신혼부부를 만났었다. 부동산 시장의 가열에 휩쓸려 계획과 정보도 없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집을 사고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에 대한 계획은 향후 5년간 없기로 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깡통 전세로 피해를 보는 청년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청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남겼다. 설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다.

2. 복지

설문 결과에 생활비의 부담이 큰 부담에 대한 항목이 식비와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 비용이었다.

(1) 식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

물가의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도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경제원리다. 식비에 부담을 줄여 줄 ‘착한 식당’과 ‘식품 바우처’제도와 같은 청년들의 식비에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경제도 살려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2)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 정책

팬데믹으로 인한 소외와 위축, 우울감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시기에 자기개발을 통한 청년들의 해소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바우처나 문화 바우처의 확대시행으로 청년들의 비용부담을 일부라도 줄여 준다면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

(1)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간과 정책들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워라벨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의식은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중요와 필요를 동시에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환경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이 지역에 없는 것이 아니다. 물론, 대도시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이 누리고자 하는 정도의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청년들의 관심과 활용이 필요하다. 그래야 뭐가 더 필요하고 부족한지 알 수 있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공간과 정책들이 지역성이라는 또 다른 폐해로 일부의 전유물이나 소유화되어 청년들의 니즈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버리는 상황들의 악순환으로 청년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문제는 오롯이 대상자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멍을 막을 수 있고, 순환 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이 확고해야 해당 분야의 정책이 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 내의 대중교통 환경의 개선

강원도는 타지방에 비해 관광지가 많고, 수도권 근접한 지리적 환경으로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내의 교통 환경과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낮은 실정이다. 인구가 적고, 자가교통 수단의 활용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대중 교통의 편의의 정도에 따라 지역 내에서도 이동 및 경제분포의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3) 정책들간의 협력과 연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비빔밥 같은 조화와 협력으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비롯한 문화적 정책과 주거정책을 연계한 대중교통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연계점 마련이 필요하다.

[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조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강원 청년의 지역 살이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에 따라 팬데믹(코로나19) 시대 강원도 청년(만 18세 39세) 및 청년 소상공인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청년·청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설문으로 강원도

청년에게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참여자 정보]

설문의 통계화를 위해 귀하의 간단한 정보를 여쭙는 항목들입니다.

Q1. 귀하께서는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여성
- 남성
- 그 외

Q3.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18~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Q4. 귀하는 강원도에서 거주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20년 이상

Q5. 귀하의 현재 주거상태는 다음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인 가구
- 가족과 함께 거주 (부모, 형제, 친척 등)
- 2인 가구 동거 (배우자, 룸메이트 등)
- 기숙사 (학교, 회사 등)
- 기타:

Q6. 현재 귀하는 다음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직장인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 창업 및 개인사업
- 취·창업 준비자
- 학생 (재학생, 휴학생)
- 기타:

Q7. 강원도에 거주하는 1차적 동기는 무엇인가요?

- 직장 때문에
- 가족 때문에
- 학업 때문에
- 강원도 내에 취업/창업하고 싶어서
-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서 계속 지내움
- 기타:

Q8. 강원살이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직장 접근성이 좋아서
- 집값이 저렴해서 (수도권보다)
- 강원도의 주거환경이 좋아서 (자연경관, 공원 등)
- 지인, 가족들이 살아서 (부모님, 배우자 등)
-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서
- 기타:

Q9. 지역(강원도)에서 계속 거주할 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골라주시겠습니까?

- 다양한 종류의 직장
- 지역 내에 대중교통 확장
- 낙후시설
- 문화/여가 시설
- 치안 문제
- 기타:

Q10. 귀하는 최근 2~3년 사이 '근로소득 저하 및 환경의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로소득 저하 : 주어진 작업(업무)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를 확신해서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 등이 감소하는 것)

- 있다
- 없다
- 기타:

Q11.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부동산 폭등
- 물가 상승
- 세금 부담
- 코로나19 확산
- 주식, 암호화폐 등 투자 열풍
- 기타:

Q12. 귀하는 코로나19로 청년으로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Q13.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노동시장이 더욱 악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악화되었다
- 악화되었다
- 보통이다
- 관계없다
- 잘 모르겠다

Q14. 귀하는 코로나19 이후 아래 항목 중 경험이 있습니까?

- 금융 제테크 (주식, 펀드, 외환 공모주 등)
- 가상화폐 투자 (비트코인 등)
- 부동산 투자, 매입 등
- 아트테크 (작품 소유권 소액 투자 등)
- 기타:

Q15. 귀하의 가정에서 1인 기준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거비용(월세, 대출 상환금, 대출 이자 등)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 30만 원 미만
-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
- 70만 원 이상~100만 원
-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 150만 원 이상

Q16. 귀하께서 지출 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무엇입니까?

- 식비
- 부채 상환비(주거비 제외)
- 교통비 (차량 유지비 포함)
- 자기개발 및 여가 활동비
- 생활비 (보험, 의료비 및 육아비 등)
- 기타:

Q17. 귀하께서는 최근 2년간 생긴 부채가 있으십니까? 부채가 있는 경우, 보유한 부채(빚)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생활비 (차량, 주식, 의료 등)
- 주택 관련 부채 (매입·보증금·전세금·월세·관리비 등)
- 교육 관련 부채 (학자금 등 교육 비용)
- 사업 (창업) 자금
- 결혼비용(주거 제외)
- 부채 없음
- 기타:

Q18.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주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격 (매매, 전세, 월세, 전세 등)
- 교육 환경 (학교, 학원 등)
- 교통 여건
- 안정성 및 주변 치안
- 친인척, 부모님, 지인들이 거주하는지
- 기타:

Q19. '결혼'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는?

- 가족, 가정, 자녀
- 사랑, 행복, 안정감
- 돈, 결혼자금, 주택 마련
- 책임감, 엄매임
- 기타:

Q20. 귀하는 구직활동 및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예 (→ 응답자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
- 아니오 (→ 응답자는 Q21.으로 이동)

Q21. 귀하께서 구직활동 및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업에 집중 (공시/고시 준비)
- 군 입대 대기
- 육아/임신, 가사
- 건강상의 이유
- 직장 생활(창업) 중 (→ 응답자는 Q38.으로 이동)
- 기타:

Q22. 귀하께서 희망하는 근로 형태는 무엇입니까?

- 정규직
- 비정규직
-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 프리랜서
- 자영업 등 고용주
- 기타:

Q23. 귀하께서 취업 및 창업 선택 시 고려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임금수준
- 고용 안정성
- 사회적 인정
- 직업의 전망
- 개인 경력 발전 가능성
- 업무의 자율성
- 전공 또는 기술 적합성
- 근로 환경 및 복리후생
- 출퇴근 소요 시간
- 노동강도
- 워라밸(work-life balance)
- 기타:

Q24. 귀하는 어떤 업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십니까?

-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 제조업,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무원)
- 창작 및 서비스업
- 기타:

Q25. 귀하는 어떤 직장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십니까?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스타트업 및 개인사업
- 기타:

Q26. 귀하가 희망하는 취업·창업 지역은 어디입니까?

- 강원도 거주 지역 내
- 강원도 비거주지역 내
- 경기권 내
- 수도권 내
- 상관없음

Q27. 귀하는 희망하는 취업·창업 준비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6개월
- 1년
- 2년
- 3년
- 기타:

Q28. 귀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업·창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기타:

Q29. 귀하가 강원도에서 취업·창업 과정 중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일자리 부족
- 취업 준비 비용 마련
- 구직 기간의 생계 문제
- 진로 선택의 어려움
- 관련 일 경험 부재, 경력 쌓기의 어려움
- 적절한 근로조건의 직장 부재
- 취업 정보 부족
- 외모, 학력, 성별 등의 차별
- 전공, 기술 자격요건 부적합
- 취업 희망 산업의 부재
- 정신적 스트레스
- 기타:

Q30. 귀하는 취업·창업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까?

- 정부 정책사업 참여 (예: 취업 성공패키지 등)
- 역량 강화 활동 (온·오프라인 취업 특강 수강 및 자격증 취득 등)
- 계약직(인턴직) 근무
- 기타:

Q31. 귀하가 지역 내의 취업·창업을 희망한다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직 및 창업활동 비용 지원
- 다양한 일자리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 제공
- 청년 대상 공공 일자리 확대
- 취업·창업을 위한 정부 정책 확대
- 기타:

Q32. 귀하가 창업 또는 개인사업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 나의 전문 영역/적성을 활용하기 위해
- 정년 없이 평생 일할 수 있어서
-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 취업이 어려워서
- 지인이 같이 창업하자고 권유해서
- 가업의 승계를 위해
- 기타:

Q33. 귀하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초기 자본 부족
- 경영능력 부족
- 인력 확보 어려움
- 판로 확보 어려움
- 기타:

Q34. 창업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창업 준비 시기
- 예비창업자 시기
- 창업 초기 시기 (1~2년 차)
- 창업 성장 시기 (3~7년 차)
- 무관

Q35. 취업&창업 관련 정보 및 교육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획득하십니까?

- 취업 포털사이트
- 각 게시판 (학교, 회사 등)
- SNS (유튜브, 인스타, 메타)
- 직업 및 취업 박람회
- 현장실습/인턴십
- 친구, 선후배 등 지인
- 교수님 (학과 사무실 포함)

Q36.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창업 준비과정에서 겪고 있거나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채용 기회 감소로 인한 입사 경쟁 심화
-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
- 단기 일자리(아르바이트) 감소로 취업 준비의 경제적 부담 증가
- 불안함, 우울함, 자존감 하락 등 심리적 위축 가중
- 진로 지도 및 멘토링 등 기회 감소
- 기타:

Q37.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응답 후 Q44.으로)

- 매우 잘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보통이다
- 잘 모른다.
- 기타:

Q38. 귀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 응답 후 Q39.으로)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기타:

Q39. 귀하께서는 최근 2년 내 직장에서 이직 또는 창업을 검토&계획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임금
- 미래에 대한 비전
- 안정적인 직장 (정년 근무, 회사 성장 전망, 정규직 여부 등)
- 복지 및 근무 환경
- 이직 의사 없음
- 기타:

Q40. 귀하는 코로나19로 사업장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매우 많음
- 많음
- 보통이다
- 피해 없음
- 기타:

Q41.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창업 및 사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개인 자금 조달, 대출 등
- 가족, 친구, 친척 등의 도움을 받는다.
- 정부, 전문기관 등 정부 정책 기대
-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 기타:

Q42. 귀하가 사업을 경영하며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

- 경력자 및 전문 기술 근로자 부족
- 보수 등 근로조건의 입장 차이
- 경제 상황 악화
- 코로나19로 인한 세대 간 이해관계 차이
- 어려움 없음
- 기타:

Q43. 귀하는 소상공인 및 창업 지원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 후 Q44.으로 이동)

- 창업에 관련 실질적인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 창업자 세금 감면 혜택
- 창업 운용 비용 지원
- 창업 관련 프로그램 교육/이수
- 지속적인 지원 정책
- 기타:

Q44. 청년 고용 및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 일자리 확대
- 공공 일자리, 공기업 연계 정책
-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 취업·창업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 기타:

Q45.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한가?

- 현실성이 없다
- 지속적인 발전으로 기대가 된다
- 도움이 된다
- 잘 모르겠다
- 기타:

Q46. 강원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직을 위한 활동비 지원
- 진로 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
- 청년 전용 공간 활용 (청년몰, 청년 마을 등)
- 청년 창업가 공간 지원 및 컨설팅
- 기타:

Q47. 강원도 일자리 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근로자 권리 보호
- 기업 투자 유치
- 전문 인력 양성
- 산업단지 조성
- 중소기업 지원
- 창업 컨설팅
- 교통, 인프라 등 물류환경 개선
- 기타:

-

Q48. 귀하는 강원도 청년 정책 수립 시 청년의 금융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자금 대출, 저축 상품 등 금전적 지원
- 금융(재무) 설계 교육/컨설팅
- 청년 대상 긴급 생활 안정 저리 대출 지원
- 목돈 마련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저축 상품
- 청년 수당 등 생활 소득 지원
- 기타:

Q49.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거 관련 정책 확대 (전문가 지원 서비스<부동산 법률, 임대차 보호법 등>)
- 동행 서비스 (함께 집을 보면서 조언)
- 대출 (주거비용 지원)
-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기타:

Q50. 강원도에 정착하여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 출산, 육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책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 청년 결혼식 지원 정책
- 청년 부부들을 위한 주택 마련 정책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등)
- 출산 후 양육수당 정책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영유아 건강검진 등)
- 신혼부부 건강검진 서비스
- 기타:

Q51. 안정적인 강원살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주택
- 결혼 및 가정 형성
- 안정적인 일자리
- 문화/여가의 질 향상
- 부채 및 재정적인 압박감 해소
- 기타:

Q52. 귀하는 강원도에서의 삶이 좋습니까?

- 예
- 아니오

Q53.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Q54. 귀하는 강원도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습니까?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이다
- 낮다
- 매우 낮다
- 기타:

Q55. 귀하는 청년으로서 강원도특별자치도 개정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까?

- 청년 일자리 확대 개선
- 지역인재 창출을 위한 교육 관련 정책 추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기반시설 수 확대
- 청년 전용 활동공간 운영 및 확보 (ex 청년 마을, 청년 물)
- 대중교통 확대정책
- 기타:

Q56. 귀하는 지역(동네)의 지역 주민단체나 시민단체를 3개 이상 알고 있습니까?

예) 주민자치 위원회, 동장협의회

- 있다
- 없다
- 기타:

Q57. 귀하는 이 지역 시민단체들과 '나'와의 연관성은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점 만점)

- 10~8점
- 7~5점
- 5~3점
- 3~0점

Q58. 귀하는 지자체 산하 연계기관 및 도내 기관과 연계된 활동(교육, 취업, 사업 연계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농어촌 기술센터,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강원 일자리재단, 소상공인 진흥원, 창업보육센터 등

- 있다
- 없다

Q59. 도내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계 활동 및 협력 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연결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 연계(비즈니스)
- 봉사 연계
- 취업 및 일자리 연계
- 교육 및 역량 강화 활동 연계
- 유대관계 연계
- 기타:

Q60. 귀하는 향후 강원도에서 타지로 이동할 계획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 기타:

[참고문헌]

- [1] 국가 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 [2]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keis.or.kr/main/index.do>
- [3] 강원통계정보, <https://stat.gwd.go.kr/gwstat>
- [4]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5]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keis.or.kr/main/index.do>
- [6]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main.jsp>
-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biz.or.kr/sup/sbiz_help/index.jsp
- [8]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 팬데믹 선언 전문 중,
<https://kmbase.medic.or.kr/KMID/1204020200140020005>
-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자체연구 2018.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성과평가 및 정책방안 연구
김상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승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진경(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도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 [10] 김난도(2021), 트렌트 코리아 2021에서 인용함
- [11] 투데이신문, 2022.02.28.일자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99>
- [12] 청양신문, 2021.08.17. 일자
<http://www.c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06>
- [13] 대구일보, 2018.7.22, <http://www.idaegu.com/?c=2&uid=391802>
- [14] 뉴스랩, 2021.9. 27,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17>
- [15]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참고 블로그
<https://blog.naver.com/bd6947/222553021692>
<https://blog.naver.com/tdi02004/222553782011>
<https://blog.naver.com/mwj63/220819768927>
<https://therainmaker.co.kr/>
- [외국 문헌]
- [1] 영국 부동산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 <https://www.knightfrank.kr/ko/about-us>

